OECD 보건·사회지표 용어 해설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OECD

머릿말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CHSP)는 OECD 주요 성과물에 대한 번역사업의 후속작업으로 'OECD 보건·사회지표 용어 해설집'을 만들게 되었다.

이 용어집은 그 동안 OECD 출판물을 번역하면서 많은 지표와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지만 마땅한 우리말이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 혼동이 되거나, 우리말과 영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시작하게 되었다.

이 용어집은 2005년도 OECD 출판물인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5'와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을 중심으로 하고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The OECD Health Project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를 참고하여 대상지표와 용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와 용어에 대해서는 가능한 알기 쉽도록 정의와 계산방법 그리고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원문을 병기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이 작은 용어집을 만들면서도 시간과 지식의 부족과 한계를 많이 느꼈다. 새삼스럽게 사전을 편집·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지대한 사명감이 요구되는가를 더불어 알게 되었다.

이 용어집이 나오기까지 성심껏 자문에 응하여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연구위원님, 유근춘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홍욱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RCHSP 한상래 무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진께도 감사를 드린다.

부족하지만 이 용어집이 보건 및 사회정책분야 관련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31일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객원연구원 **임 달 오**
소 장 **이 영 호**

일러두기

1. 용어의 해설에서 국가는 OECD 회원국을 지칭한다.
2. 수록된 용어는 보건과 사회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보건부문은 'OECD(2005),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5'와 사회부문은 'OECD(2005),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목차 순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3. 용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의,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그리고 주요의미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4. 국문 및 영문 용어명을 함께 병기하였으며 이해를 돕도록 가능한 정의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OECD 원문을 제시하였다.
5. 기타 관련지표는 OECD지표를 이해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가,나,다 순).
6. 찾아보기에서는 국문(가,나,다 순) 그리고 영문(A,B,C 순)으로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OECD.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5. OECD, 2005.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05.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2005.

OECD. The OECD Health Project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OECD, 2005.

보건복지부,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5, 2006.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2005, 2006.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한 눈에 보는 OECD 연금 2005, 2006.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노인장기요양 2005, 2006.

통계청, 통계용어사례집 2006, 2007.

보건복지부, 2006년도 OECD 보건통계생산, 2006.

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2005.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 고용구조, 2005.

아카데미아, 지세근 외화용어사전, 2006.

OECD 보건지표

❂ 건강상태

기대여명 ····· 15
평균수명 ····· 15
건강여명 ····· 16
사망 ····· 18
사망률 ····· 18
심혈관질환 사망 ····· 18
암 사망 ····· 19
사망의 외인 ····· 20
영아사망 ····· 21
주산기사망 ····· 21
모성사망비 ····· 22
잠재수명손실년수 ····· 23
영아건강 ····· 24
저체중출생아 ····· 24

❂ 보건의료자원과 이용

어린이 치아건강 ····· 25
우식경험영구치수 ····· 25
활동의사와 활동간호사 ····· 26
활동의사 ····· 26
활동간호사 ····· 27
보건의료전문직의 보수 ····· 28
의료보장 비용 부담률 ····· 30
공공부담률 ····· 30
일반의 및 간호사 ····· 31
일반의 수 ····· 31
간호사 수 ····· 31

급성기의료 병상수, 이용과 점유율 ····· 32
급성기의료 병상수 ····· 32
입원진료 병상수 ····· 34
급성질환진료 병상이용률 ····· 35
급성질환진료 병상회전율 ····· 36
의료기술 ····· 37
의사진찰 ····· 39
예방접종 ····· 41
어린이 예방접종 ····· 41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42
퇴원 ····· 43
재원일수 ····· 44
평균재원일수 ····· 44
심혈관질환 처치 ····· 46
제왕절개 ····· 48
당일수술 ····· 49
백내장수술 ····· 49
외래수술 ····· 50

❂ 의료비와 재정

1인당 의료비 ····· 51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 53
기능별 의료비 ····· 54
총보건의료비 ····· 56
총경상지출 ····· 56
약제비 ····· 57
보건의료재원 ····· 59
보건관련지출 ····· 61

❂ 보건의 비의료적 결정요소

담배 소비 ····· 63
알코올 소비 ····· 65

식품 소비 ····· 67
과체중과 비만 ····· 69

◎ 인구 및 경제적 배경

총인구와 인구구조 ····· 71
출산 ····· 73
출산율 ····· 73
국내총생산과 소득불평등 ····· 74

OECD 사회지표

◎ 일반상황

1인당 국민소득 ····· 79
연령부양비 ····· 81
출산율 ····· 82
외국인과 외국출생인 ····· 83
결혼과 이혼 ····· 84

◎ 자활 관련

고용 ····· 86
실업 ····· 87
실직가구 ····· 89
취업모 ····· 90
실업급여 ····· 92
최저생계급여 ····· 94
교육수준 ····· 95
퇴직연령 ····· 96
청년실업 ····· 97

◎ 형평성 관련

일반상황 ····· 99
상대빈곤 ····· 99
소득불평등 ····· 101
아동빈곤 ····· 102
노인소득 ····· 103
공공사회지출 ····· 105
민간사회지출 ····· 106
총사회지출 ····· 107
연금 ····· 109
노령연금대체율 ····· 109
연금약정 ····· 110
연금자산 ····· 112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 113
연금소득상한 ····· 114
연금수급연령 ····· 114
지급연금연동 ····· 115
상대연금수준 ····· 116
대체율 ····· 117
순대체율 ····· 118
가중평균기법과 소득분포 ····· 119
가중평균연금수준과 연금자산 ····· 119
개별제도의 세대간 자원이전기여도 ····· 120
확정급여제도 ····· 120
점수제도 ····· 121
명목계정 ····· 121
수급요건 ····· 122
급여산정 ····· 122
경제변수 ····· 123
목표제도 ····· 124
최저연금제도 ····· 124
기초연금제도 ····· 124
소득비례연금제도 ····· 125

확정기여제도 ····· 125
기업연금제도 ····· 125

✪ 건강 관련

일반상황 ····· 126
기대여명 ····· 126
건강여명 ····· 127
영아사망 ····· 128
국민의료비 ····· 129
장기요양 ····· 131
장기요양보호 ····· 131
일상생활활동 ····· 132
수당 ····· 133
요양보호 ····· 133
소비자선택형 ····· 133
장애노인 또는 피부양 ····· 134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 134
재가보호 ····· 134
비공식보호 ····· 136
시설보호 ····· 137
장기요양보호시설 ····· 138
노인 ····· 138
가정 ····· 139
요양시설/ 요양시설서비스 ····· 139
보호자휴식서비스 ····· 139
노년부양비 ····· 140

✪ 사회통합 관련

주관적 웰빙 ····· 142
사회적 고립 ····· 143
단체참여 ····· 145
10대 출산 ····· 146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 147
사살 ····· 149

Ⅲ 기타 관련지표

가구 ····· 153
가구원 ····· 153
경제성장률 ····· 154
경제활동인구 ····· 154
경제활동참가율 ····· 155
구매력지수 ····· 156
국내총생산 ····· 156
국내총지출 ····· 157
국민소득 ····· 157
국민가처분소득 ····· 158
국민총소득 ····· 158
사망 ····· 159
사망력 ····· 159
사망률 ····· 159
사망원인별 사망률 ····· 159
생산가능인구 ····· 160
신업자 ····· 160
연령별 사망률 ····· 161
연령별 이혼율 ····· 161
연령별 출산율 ····· 162
연령별 혼인율 ····· 162
연앙인구 ····· 163
이혼 ····· 163
이환 ····· 164

이환율 ····· 164
자본이전 ····· 164
조사망률 ····· 165
조출생률 ····· 165
최저생계비 ····· 165
출산력 ····· 166
출생 ····· 166
취업 ····· 166
취업자 ····· 167
평균임신연령 ····· 168
혼인 ····· 168

찾아보기

국문 ····· 169
영문 ····· 171

건강상태

② 기대여명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정의

- 0세(출생시)의 기대여명이다.
- 특정 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 그 연도의 사망률 수준을 전제로 했을 때의 평균사망연령을 말한다. 즉 특정 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를 말한다. 즉, X세의 기대여명은 특정 년도에 X에 도달한 인구가 그 이후에 더 생존할 수 있는 평균년수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평균수명은 주어진 일련의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한다.
-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계산방법으로 평균수명을 계산한다.
  - 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국가의 평균수명 측정치가 수분의 1년 정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보고된 평균수명 추정치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제시통계 : 평균수명(성별, 전체), 1인당 GDP와 평균수명, 1인당 의료비와 평균수명, 65세 연령의 기대여명(성별), 65세, 80세 연령의 기대여명의 추이(성별, OECD 평균) 등

▶ 주요의미

- 수명의 증가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교육, 의료

Life expectancy measures how long on average people would live based on given set of age-specific death rates.

의 접근과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기인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은 영양, 위생과 수택 같은 요인들이 수명의 신장에 영향을 주었다.

-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흡연 같은 위험행태의 남녀 차이 감소에 의한 것과 남자의 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에 기인한다.
-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국가간 기대여명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국민소득과 국민의료비 이외에 많은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건강여명
Health expectancy

▶ 정의

- 건강여명은 장애가 없는 상태의 기대여명으로 기대여명에서 장애년수를 뺀 나머지의 기대년수이다.
  - 장애가 없는 상태란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건강여명은 장애가 없는 상태의 기대여명(disability-free life of expectancy)과 주관적인 건강기대여명(healthy life expectancy)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장애가 없는 생존기간(disability-free life span)을 나타내는 종합적 지표는 장기간의 무능력으로 발생하는 복지의 손실량을 측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장애가 없는 상태의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있으며, 주로 Sullivan method를 사용하고 있다.
- Sullivan method는 기간 생명표의 연령 코호트(period life table cohort at different ages)별 생존기간을 장애가 있는 기간과 장애가 없는 기간으로 나누기 위하여 일정 시점 인구의 장애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 이환이나 장애 또는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의 측정 및 수집방법에 따라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며, 얼마나 엄격한 조사방법과 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 주요의미

- 한 인구집단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기대여명의 증가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환(morbidity), 장애(disability)에 관한 자료, 그리고 사망력(mortality) 자료 등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지표이다.
- 실제적으로 이 지표는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REVES(reseau de vie en sante)의 국제전산망을 통하여 지표를 작성하는데, 계속적으로 표준화 및 동일성 유지에 관한 연구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② 사망

사망률
Mortality rate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WHO Mortality Database에서 선정된 사망원인 사망수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 연령별 표준화사망률은 국가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고, OECD 인구구조를 표준화하여 산출한다.
- WHO는 사망원인 자료의 적용범위 그리고 완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
- 제시통계 : 사망률, 주요 사인별 구성비 등

▶ 주요의미

- 사망률은 보건 문제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원으로서 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다.

Mortality rates are estimated based on the crude number of deaths according to selected causes as provided in the WHO mortality Database.

심혈관질환 사망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 정의

- 심혈관질환은 허혈성심질환(심장마비)과 뇌혈관질환(뇌졸중)을 포함하는 순환기계통의 질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망률 참조.
- 제시통계 :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 뇌혈관질환의 사망률 등

▶ 주요의미

- 허혈성심질환(IHD : ischemic heart disease)은 관상동맥 내벽의 지방침전물에 의하여 심장으로 혈류가 방해받아 발생하며,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은 뇌의 혈액공급 장애로 일어나는데, 뇌졸중에 의한 무능력의 부담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 연령을 제외한 다른 위험요인들로는 콜레스테롤, 과체중, 비만, 지나친 음료 섭취 등이 있다.
- 모든 OECD 국가의 허혈성심질환과 뇌졸중은 심혈관질환 사망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높다.
- 허혈성심질환과 뇌졸중 사망의 감소는 위험요인 감소가 부분적인 원인이 되며, 흡연과 고혈압은 뇌졸중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이다.
- 허혈성심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담배소비의 감소 등이 허혈성심질환 사망률의 감소에 기여한다.

암 사망
Cancer, mortality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망률의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참조.
- 암사망률의 국가간 비교는 국가간 사망증명과정이나 의료훈련 및 업무의 차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제시통계 : 암 사망률, 폐암 사망률, 유방암 사망률, 전립선암 사망률 등

▶ 주요의미

- 암 사망의 국가간 차이는 흡연 같은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의료적 요인과 각종 암의 조기진단과 효과적 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요인에 기인한다.
- 모든 국가의 암 사망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다.
  - 암 사망률의 성별 차이는 남자에게 위험요인의 빈도가 높고, 남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특정 암에 대한 선별진단 프로그램의 부적절함과 낮은 이용도에 의하여 일부 설명된다.
- 폐암은 모든 국가(스웨덴과 아이슬란드 제외)에서 여전히 남성에서 가장 많은 암 사망이며, 여자에게도 주요 암 중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주요

한 위험요인이다.

- 유방암 발생률은 대다수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유방암 사망률은 감소하거나 정체 추세이다.
  - 사망률의 감소는 유방암의 선별진단(초기 케이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함)의 증가와 좀더 개선된 치료에 기인한다.
- 전립선암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과 식이 요인으로 올 수 있으며, 전립선암 발생률이 상승한 것은 전립선특이항원(PSA : prostate-specific antigen)진단검사 이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사망의 외인
External causes of death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망률 참조.

▶ 주요의미

- 교통사고 사망률의 개선은 교통안전의 도로시스템 개선, 교육과 예방 캠페인, 새로운 법과 규제의 채택, 많은 교통통제 등 새로운 법의 집행에 기인한다.
- 추락사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고령층 추락사의 주요 위험요인은 빈약한 영양상태, 약시, 문의 균형과 심습신이, 불충분한 운동 및 주변환경의 위험 등에 기인한다.
- 자살은 어떤 국가이든 불법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자살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3-4배 높다.
  - 성별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덜 치명적인 자살방법을 사용하는 데 기인한다.
  - 사망원인의 기록은 자살을 "알려지지 않은 (unknown)"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처럼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국가간 차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 OECD 회원국의 타살은 상대적으로 적다.
  - 타살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 정의

• 특정 년도에서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1년 이내)에 사망한 출생아 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 / 출생아 수 × 1,000
  - 분자에 포함되는 사망아 수는 해당 년도에 출생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분모의 출생아수는 해당 년도의 출생아 수를 말한다.
• 영아사망은 발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산출이 매우 어렵다.
• 제시통계 :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영아사망률의 감소, 영아사망률의 추이 등

▶ 주요의미

• 영아사망은 보건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수준을 반영한다.
• 조산아의 저체중은 선진국 신생아사망률의 주요 위험요인이고, 고령임신의 증가와 보조생식술에 의한 다태아 증가로 인하여 조산아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 출생 후 1년간 사망의 3분의 2 정도는 신생아사망(출생 후 4주)이며 신생아사망은 임신기간 동안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에 기인한다.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the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in a given year, expressed per 1000 live births. Neonatal mortality refers to the death of children under 28 days.

주산기사망
Perinatal mortality

▶ 정의

• 출생 및 임신 28주 이상의 사산과 1주일이내 신생아 사망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산기 사망률은 분모가 출생아 수(원칙적으로는 임신 28주 이상의 사산수 + 출생아 수)이지만, 여기서 분모는 인구가 된다. 따라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1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 / 인구 × 100,000
• (임신 28주 이상의 사산+1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 / (출생+사산) × 1,000
  - 분모에 포함된 사산은 분자의 경우와 같이 임신 28주 이상의 사산을 말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사산의 경우 '임신 28주 이상'이 아닌 '임신 24주 이상'을 채하는 국가도 있다.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 정의

• 총 출생아수에 대한 임산부 사망수로서 산과적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임산부 사망 수 / 총 출생아 수 × 100,000
  - 분모는 모성사망의 위험에 있는 임신한 여성수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 수를 알지 못하므로 그 대략치로서 출생아 수를 사용한다.

잠재수명손실년수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 정의

•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생존가능기간까지 살지 못한 손실년수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여기서 사용되는 생존가능 연령은 69세를 기준으로 한다.

•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PYLL(Y) = \sum(69\text{-}Yi) / 인구 \times 100{,}000$

  Y = 어떤 질병 Y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연령(69세 이하)

  i = 질병 Y로 사망한 사람을 나타내는 첨자(69세 이하)

- 분자의 괄호 안의 내용은 질병 Y로 사망한 어떤 사람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69세까지 더 살지 못한 년수(손실년수)를 뜻한다.

▶ 주요의미

• 이 지표는 의학적 지식의 적용과 알려진 공중보건 수칙이 지켜졌을 경우에 예방이 가능하였을 질병으로 사망한 조기사망의 일반적 측도로 사용된다.

Potential Years of Life Lost(PYLL) is a summary measure of premature mortality which provides an explicit way of weighting deaths occurring at younger ages, which are, a priori, preventable. The calculation of PYLL involves summing up deaths occurring at each age and multiplying this with the number of remaining years to live up to a selected age limit.
The limit of 70 years has been chosen for the calculations in OECD Health Data.

② 영아건강

저체중출생아
Low birth weight infants

▶ 정의

- 2,500g 미만 출생아를 말한다.
- 저체중출생아는 조산으로 인한 경우와 태아성장지연(inhibited foetal growth) 또는 자궁내 성장지연(IUGR : intra uterine growth retardation) 두 부류가 있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2,500g 미만의 신생아수 / 출생아수 × 100
- 총 출생에 대한 백분율로서 2500g 미만 출생아 수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인구동태신고서에서 출생시 체중이 보고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매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 제시통계 : 저체중아 출생률, 저체중아 출생의 백분율 변화, 저체중아 출생의 추이, 저체중아 출생과 영아사망률 등

▶ 주요의미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간 보건수준의 비교에 유용하며, 출산체중, 영아사망, 이환율 등과 연관성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간주된다.
- 조산으로 인한 경우와 태아성장지연 또는 자궁내 성장지연에 의해 발생하며, 높은 사망위험과 출생 후 오랜 입원기간이 필요하며 심한 지체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결정인자로는 사회경제적 상태(교육, 소득, 민족 / 인종), 인구학적 요인(결혼연령, 다출생), 흡연, 음주 같은 개인행태, 산전진료의 수준 등이며 세외수정의 증가, 고령임신, 의료기술과 개선된 산전진료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된다.

Low birth weight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live births weighing less than 2,500 grams as a percentage of total live births.

보건의료자원과 이용

어린이 치아건강

우식경험영구치수
Number of decayed, missing or filled permanent teeth (DMFT)

▶ 정의

• 부식되거나 상실 또는 충전된 영구치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12세 어린이의 부식, 손상, 충전 영구치아수를 개인의 충치수로 계산하여 나타낸 지표이다.
  - 1.2 미만은 매우 낮음, 1.2~1.6개는 낮음, 2.7~4.4개는 보통, 4.5개 이상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제시통계 : 12세 어린이의 평균 충치, 상실, 충전된 치아수, 12세 어린이의 평균 충치, 상실, 충전된 치아수와 인구 1,000명당 치과 의사수 등

▶ 주요의미

• DMFT의 실제적 차이는 치과의사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치아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 치아질환은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서 불소잡족이나 높은 치아위생 등의 예방조치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은 식이습관과 흡연가 크고 선진국에서 치아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은 대체적으로 높다.
• 지이사회 심속도, 불소화, 질병관리, 개선된 치아위생 같은 많은 공중보건 정책을 통하여 충치와 기타 치아질환의 퇴치가 이루어진다.

A common measure of dental health is the DMFT index. It describes the amount of dental caries in an individual through calculating the number of decayed(D), missing(M), or filled(F) permanent teeth. The sum of these three figures forms the DMFT index.

㉡ 활동의사와 활동간호사

활동의사
Practising physicians

▶ 정의

• 활동의사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의료에 활동하는 의사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전일근무환산치 또는 실제로 활동하느냐가 아니라 활동사적이 있는 의사 수로도 제시된다.
• 제시통계 : 활동의사율, 활동의사의 연평균성장률, 전체 의사 중 여자 의사의 백분율, OECD 국가의 활동의사 중 외국에서 훈련된 의사 수 등

▶ 주요의미

• 활동의사의 수, 분포, 구성은 의료직 진입의 제한, 전문분야 선택, 인구 통계적 특성(예 : 연령, 성), 보수, 근로조건, 그리고 국외이주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공공기관에서 의과대학 입학에 제한을 두느냐 또는 의과대학이 매년 선체 학생 정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에서 의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 의과대학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계속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 의료직에 대한 참여는 새로운 의료 인력의 귀중한 원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방식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Practising physicians are defined as the number of doctors who are actively practising medicine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활동간호사
Practising nurses

▶ 정의

• 활동간호사는 공공 및 민간 병원, 의원, 기타 보건의료시설(개업간호사 포함)에 고용되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완전한 자격이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 서로 다른 범주의 간호사의 포함여부, 불완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사방법의 차이 등 때문에 비교시 제한이 따른다.

- 보조/간호조무사의 포함여부와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만을 포함하고 다른 보건의료시설에서 일하거나 사영 간호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

• 제시통계 : 활동간호사(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의 변화, 활동의사 대비 활동간호사, 간호사의 여성참여율 등

▶ 주요의미

• 보수는 간호직의 참여 그리고 적격 간호사의 유지뿐만 아니라 간호학교 입학에 영향을 준다.

• 채용 시 근무시간의 선택 및 퇴직제도의 제공, 인사관리정책의 개선, 생력향상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 간호사 부족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퇴직에 의한 간호사 공급의 감소와 관련 있다.

-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용을 늘리고 유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

Practising nurses are defined as the number of actively practising nurses employed in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clinics and other health facilities, including self-employed nurses.

㉡ 보건의료전문직의 보수

보건의료전문직의 보수
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 정의

• 보수는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한 연평균 총 소득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보수는 상여금, 야간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과 같은 모든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정규보수를 포함한다.
  - 병원 간호사의 시간외 수당, 비공식적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영의사의 경우 영업비용은(비록 임업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외된다.
• 간호사의 보수에 관한 자료는 봉급을 받는 병원 간호사에 한한다.
• 의사의 평균 수입은 개업 또는 피고용 의사(전문의, 가정의를 포함한 일반의) 1인당 평균 수입을 말한다.
  - 평균수입은 사업비용을 제외한, 세금공제 전의 평균 순수입을 말하며 사회보장 분담금도 포함한다.
• 국가간 수집 자료의 차이, 의사와 간호사의 여러 범주, 각국의 자료원과 계산 방법의 다양성, 보수의 다른 형태 때문에 비교시 제한이 따른다.
• 제시통계 : 1인당 GDP에 대한 의사의 보수비(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수와 전문의 상대적 보수, 1인당 GDP에 대한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의 보수 등

Data on health professionals' remuneration refers to average gross annual income, which includ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income taxes payable by the employee. Remunerations should also normally include all extra formal payments, like bonuses, payments for night on-call and overtime compensation.

▶ 주요의미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 생산성 및 보수의 국가간 차이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보수수준은 다양한 보건의료직의 부족과 과잉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의사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및 보상에 관한 국가 정책에 대하여 정보를 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일반의는 전문의보다 보수수준이 낮다.
  - 대부분 국가에서 1인당 전문의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경향이 있지만 1인당 전문의 수 수준이 비슷하여도 보수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⑫ 의료보장 비용 부담률

공공부담률
Public-sharing rate

▶ 정의 및 산출방법

• 입원진료비에 대한 평균 공공부담률
  - 입원진료비 청구에 대한 공공부담 1건당 평균 부담률, 즉 부담률의 평균을 말한다.
  - 입원 공공부담률의 합계 / 부담건수
• 외래진료비에 대한 평균 공공부담률
  - 외래진료비 청구에 대한 공공부담 1건당 평균 부담률, 즉 부담률의 평균을 말한다.
  - 외래 공공부담률의 합계 / 부담건수
• 의약품진료비에 대한 평균 공공부담률
  - 의약품처방비 청구에 대한 공공부담 1건당 평균 부담률, 즉 부담률의 평균을 말한다.
  - 의약품 공공부담률의 합계 / 부담건수
• 의료기기비용에 대한 평균 공공부담률
  - 의료기기비용 청구에 대한 공공부담 1건당 평균 부담률, 즉 부담률의 평균을 말한다.
  - 의료기기 공공부담률의 합계 / 부담건수

㉡ 일반의 및 간호사

일반의 수
General practitioners

▶ 정의

-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일반의를 말한다.
- General practitioner(GP)는 일반적으로 일반의를 뜻하지만, Family practitioner (Doctor)는 국가에 따라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의 또는 전문의의 한 종류인 경우가 있다.
  - 일반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즉 소아과 전문의를 아동의 일반의로, 부인과 전문의를 일반의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개업 또는 피고용을 불문한다.
- 해외취업 의사는 제외되나, 국내취업 외국인 의사는 포함한다.
-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간호사 수
Practising certified/registered nurses

▶ 정의

-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정규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1급 간호사, 1~2년의 정규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2급 간호사로 정의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조산사를 간호사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있고, 별도의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다.
- 해외취업 간호사는 제외되나, 국내취업 외국인 간호사는 포함한다.

㉡ 급성기의료 병상수, 이용과 점유율

급성기의료 병상수
Acute care hospital beds

▶ 정의

- 급성기의료 병상은 치료 가능한 의료를 위한 병상만을 포함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병상을 일반 또는 급성으로 구분한다.
- OECD에서 요구하는 병상수는 입원진료기관의 일일평균병상수 또는 연앙병상수이다.
  - 병상은 입원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즉시 제공 가능한 병상(가동병상)을 말한다. 즉, 1일 24시간 동안 비워있든 채워져 있든 실제로 입원환자를 위하여 배정된 병상을 말한다.
  - 장기요양병상은 장기적인 진료를 요하는 중상 그리고 자립 및 일상생활의 활동 정도의 감소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병상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급성기의료 병상의 점유율은 급성기병상수에 일수(365)를 곱하고 급성기의료병상수로 나눈다.
- 요양원의 경우 일시적인 보호를 위하여 허가된 병상도 포함하나 수술대, 회복대, 분만대, 신생아용 간이침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응급의 특성 및 병상, 허가되지 않은 환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병상 등은 제외한다. 어떤 이유로 폐쇄된 병동의 병상(주중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말에는 사용 불가능한 병상은 포함)도 제외한다.

Acute care hospital beds should in theory only include beds available for "curative care" as defined in the SHA Manual.
The occupancy rate for acute care beds is defined as the number of hospital beddays related to acute care divided by the number of available acute care beds multiplied by the numberof days(365).

- 의료 및 의료서비스를 상담부문 공급하고 있는 요양원의 병상은 포함되어야 하나, 이들 병상들이 제외되거나 또는 이들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이 결여되어 국가간 병상수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급성기의료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진료기능에는 국가간 차이가 있어서 자료의 비교 가능성이 제한된다(예 : 장기요양, 재활, 완화진료를 위한 병상을 제외함).
- 세시통계 : 급성기의료 병상수, 급성기의료 병상수의 점유율 등

▶ 주요의미

- 급성기의료 병상수는 병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척도가 된다.
  - 이 수치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응급 또는 선택적 중재를 받는 외래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의 수용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한다.
- 1인당 병상의 감소는 병원 효성의 측면에서 축박이 필요한 병원 입원/퇴원의 감소, 입원환자의 평균재원기간의 감소, 이용 가능한 병상 점유율 증가 등 세 가지 가능한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연간 또는 분기별 병상수의 산출은 심한 전염병의 출현 후 병상의 일시적인 철거 등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입원진료 병상수
Inpatient care beds

▶ 정의

- 입원진료기관의 가동병상수를 말한다.
- 일일 가동병상수의 평균이나 연앙 추정치를 원칙으로 한다.
- 입원진료기관에는 급성질환 진료병원(acute hospital), 정신병원(psychiatric hospital), 노인요양원(nursing home)과 기타의 장기요양보호시설(long-term care institution)을 포함한다.
  - '기타의 장기요양보호시설'은 재활(rehabilitation), 회복 및 관찰을 위주로 하는 진료(post-clinical care), 특수 만성질환의 진료 등을 위한 입원시설을 말한다.
- 입원진료기관에는 공립병원(public hospital)과 사립병원(private hospital)을 불문하고,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특수병원(special hospital), 연장진료기관(extended care institution), 정신병원, 결핵병원 및 결핵환자요양원 등 모든 형태의 입원진료기관을 포함한다.
  - '특수병원(special hospital)'은 소아과 병원, 성형외과 병원, 암병원, 재활병원 등을 말한다.
- 급성기의료(acute care)는 의료기관(병원) 또는 병동(병원의 진료부서)에 의하여 정의된다.
  - 의료사원 및 의료이용통계의 작성에서 급성질환자 입원진료병원 또는 병동은 일반적으로 내과질환, 산과질환,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소아과질환 또는 성곡외과질환 등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입원진료기관을 말한다.
  - 단기의 개념은 퇴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18일 이하이면 단기로 분류한다(1950~1980년대에는 30일 이하를 단기로 보았으나, 1990년대에 18일 이하로 변경됨).
  - 한 병원에 장기진료 입원자의 특수병동과 급성질환자 병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 급성질환자 병동의 병상수는 포함되며 장기진료 입원자의 특수병동의 병상은 제외된다.
- 정신질환자 입원진료 병상수

- 정신병원의 가동병상수를 말한다.
- 정신병원은 아니라도 정신과 병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병동의 병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 노인요양원 병상수
- 노인요양원은 상당한 양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원을 말한다(단순한 양로원은 제외함).
- 상당한 양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원은 입원 신료기관으로 포함한다.

• 가동병상수는 1일 24시간 동안 비워있는 채워져 있는 간에 실제로 입원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배정된 병상수를 말한다.
- 응급실, 회복실, 분만실의 병상, 외래진료에 사용되는 병상, 신생아병상은 제외되나, 중환자실 병상은 포함된다.
- 가동병상수는 증개축의 경우 또는 재해로 입원환자가 증가하여 이미 배정된 입원환자 병상 외에 임시로 병상을 추가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급성질환자 입원진료 병상수 : 병상, 연앙 추정치
- 급성질환자 입원진료기관의 일일 가동병상수의 평균이나 연앙 추정치를 원칙으로 한다.

급성질환진료 병상이용률
Acute care occupancy rate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병상이용률은 실제로 이용된 병상수를 가동병상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 병상이용률 = 이용병상수 / 가동병상수 × 100

▶ 주요의미

• 소유한 병상수의 효과적인 이용률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급성질환진료 병상회전율
Acute care turnover rate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병상회전율=입원(퇴원)건수 / 입원진료 가동병상수 × 100
  - 당일 입원 및 퇴원의 경우는 입원건수에서 제외된다.
- 상기요양보호시설이 포함되면 이 지표의 원래 이용 목적에 약간의 혼합이 생기므로, 정신병원과 노인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산출한다.
  - 이때 정신병원과 노인요양원이 제외되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어떤 국가에서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평균을 산출하며 이와는 달리 매년 한번 씩 작성하는 국가도 있다.

② 의료기술

의료기술
Medical technologies

▶ 정의

- 의료기술은 방사선치료장비, 전산화단층촬영기 등 진단의료장비를 말한다.
-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hy equipment)는 X-레이나 방사선핵종의 취급을 위한 장비로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한다.
  -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s)
  - 코발트(cobalt)-60
  - 세슘(caesium)-137 감응기
  - Orthovoltage X-레이
- 전산화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 scanners)는 X-레이 단층촬영을 위한 CT 스캐너라고도 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인구 백만 명당 의료기술 장비수로 나타낸다.
- 방사선치료장비에 관한 자료에는 선형가속기, 코발트-60 유니트, 세슘-137 감응기, 저상용선압(low to orthovoltage) X-레이 유니트(근접치료 유니트는 보통 제외)를 포함한다.
  - 미국은 이들 장비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단기 종합병원 수를 말한다. 즉 전체 진료 공간에 사용되는 총수이기 보다는 이들 형태의 장비를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수를 나타내므로 과소평가된다.
- 혈액투석기(hemodialysis stations)는 자가치료기를 포함한 혈액투석기의 대수를 제시한다.
- 유방촬영기(mammographs)는 X-레이에 의한 유방의 영상실험을 위한 장비, 초음파 및 핵자기공명기 등의 대수를 제시한다.

The number of medical tecnology devices per million population. Data on radiation therapy equipment include linear accelerators, cobalt-60 units, caesium-137 therapy units and low to orthovoltage x-ray units(brachytherapy units are normally excluded)

• 세시통계 : 자기공명영상기(MRI:magenetic resonance imaging units)장비 수, CT 스캐너수, 유방조영상비수, 방사선치료장비수 등

▶ 주요의미

• 국민소득과 국민의료비는 의료기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 첨단의료장비 관련통계는 의료 관련 첨단기기의 수량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산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기, 방사선치료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혈액투석기, 유방촬영기 등의 대수를 파악하는 통계이다.
• CT, MRI, 유방조영술, 방사선치료장비의 이용 관련 자료가 장비의 전체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실제 이용 정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 의사진찰

의사진찰
Consultations with doctors

▶ 정의

• 의사진찰은 의사(일반의와 전문의)의 외래환사 접촉을 말한다.
  - 접촉은 보통 진료실, 일차 진료소, 병원의 외래, 환자의 집에 왕진을 통한 환자접촉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1인당 의사진찰수는 의사(일반의와 전문의)의 외래환사 접촉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것이다.
  - 보건의료체계에서 환자접촉은 대부분 진찰실, 일차진료소 또는 외래의 의사진찰을 포함한다.
• 추정치는 대부분 국가의 보통 행정자료이고, 예외적으로 건강면접조사에 의한 것이다.
  - 의사방문에 국한하지 않고 전화에 의한 진찰을 포함하나, 전문의의 개인진찰 그리고 모성과 아동의료를 위한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다. 민간개업의 방문을 제외하기도 한다.
  - 대부분 국가의 자료원은 행정자료로서 부정확한 기억과 비응답률에서 발생하는 조사의 오차와 편의가 없기 때문에 보고자료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
  - 면접조사자료의 장점은 보건의료지표(의사의 진찰 같은)를 사회경제적 상태(소득, 교육, 직업)와 같은 다른 변수와 연관시켜 분배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Consultations with doctors per capita refer to the number of ambulatory contacts with physicians (both generalists and specialists) divided by the entire population. The number of contacts normally includes : consultations of patients at the physicians office, in primary care clinics and in outpatient departments of hospitals, and visits made to the patient's home.

• 제시통계 : 1인당 의사진찰(행정자료와 건강면접조사에 의한 추정), 소득수준별 의사진찰 등

▶ 주요의미

•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문의에게 의뢰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 일반개업의 "문지기(gatekeeper)"를 우선 만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한다.
• 평균 의사접촉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의사의 이용의 접근성, 개인의 진찰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의사접촉수는 서비스 기간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공한 서비스의 양에 대한 대략적인 측정치이다.

㉡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Childhood immunisation

▶ 정의

• 1세 아동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복합예방접종과 홍역 예방접종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복합예방접종을 한 1세 아동의 비율과 홍역 예방접종을 한 1세 아동의 비율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제시된다.

• 제시통계 : 어린이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어린이의 예방접종률, 홍역 예방접종률의 추이 등

▶ 주요의미

•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린이의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여러 국가에서 많은 아동 전염성 질환이 극적으로 감소하였고, 더 이상 영아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 홍역과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을 막는데 있어서 그러한 제도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ness)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예방접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인 국가수준의 예방접종제도의 부족, 공공의료비의 불안성성,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개인만족도 또는 이미 알려진 역효과의 우려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기인될 수 있다.

• 성공적인 국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호주는 2세에서 홍역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이 목표이고, 벨기에는 DTP가 18~24개월, 캐나다와 핀란드는 DTP와 홍역이 2세, 네덜란드는 14~15개월, 그리고 미국은 19~35개월에 완전예방접종 달성이 목표이다.

Childhood immunisation refers to two measures : the percentage of 1-year-old children vaccinated against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combined(DTP), and the proportion of 1-year-old children vaccinated against measles.

- 일부 국가의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이 거의 의무사항으로서 장래의 의료보호, 어린이시설 또는 학업에 필수요소가 된다.
- 일부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을 통한 철저한 후속 캠페인을 채택할 수 있고, 대중 매체를 통한 전달 및 촉진이 예방접종 캠페인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Influenza immunisation among elderly people

▶ 정의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 받은 6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예방접종율은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인구를 65세 이상 총인구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다.
• 제시통계 : 65세 이상 인구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 65세 인구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증가율 등

Influenza immunisation rate refers to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ver who have received an annual influenza vaccination,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people over 65 years of age.

퇴원

퇴원
Hospital discharges

▶ 정의

- 퇴원은 일정 기간의 입원 치료 후 급성진료시설로부터 입원환자가 나가는 것을 말한다.
  - 보통 입원 중 병원사망을 포함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당일 입·퇴원을 제외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동일 병원 내에서 다른 진료과로 이송은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 일부 국가(예, 핀란드)가 병원의 한 유니트에서 다른 유니트로 이송되는 경우를 퇴원에 포함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
- 퇴원에서 국가간 비교는 몇 가지 다른 제한이 있는데, 일부 국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
  - 공공병원에 한정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퇴원을 고려하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 대부분 국가의 퇴원율은 1일 재원(당일퇴원)의 진료를 포함하지 않고 환자 중상 구성(입원에 필요한 환자 증상의 구성양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제시통계 : 인구 1,000명당 퇴원수, 퇴원의 백분율 변화, 진단분류별 OECD 국가의 평균 퇴원율, 순환시스템의 질환 퇴원율 등

▶ 주요의미

- 퇴원율은 병원활동의 중요한 척도이다.

Discharge is the release of an inpatient from an acute care institution after admission for a period of hospitalisation. It normally includes deaths in hospital following inpatient care, but in most countries excludes same-day seperations.

⑫ 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Average length of stay in hospitals (ALOS)

▶ 정의

- 급성기의료(acute care)에 대한 평균재원일수는 급성질환의 입원시설에서 환자가 보내는 평균일수(하룻밤을 지냄 포함)를 말한다.
  - 급성기의료의 정의는 SHA(system of health accounts) 매뉴얼에서 정의된 "치료 가능한 의료(curative care)"의 범주에 속한 의료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급성기의료에 대한 평균재원일수(ALOS)는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급성기의료 입원시설에서 모든 환자가 재원한 모든 일수를 나눔으로써 측정된다.
- 급성기의료에 포함되고/제외되는 의료의 기능에는 국가간 비교시 제한이 따른다(재활, 임시의료와 장기의료를 포함할지 안할지 등).
- 제시통계 : 급성기의료의 평균재원일수, 급성심근경색의 평균재원일수, 정상분만의 평균재원일수 등

▶ 주요의미

- 평균재원일수는 보통 효율성의 지표로서 간주되며, 효율성의 측정지표만 신중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특정질병 또는 상태를 고려한 평균재원일수는 국가간 중증도, 다양성과 심각성의 차이에 의한 이질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 평균재원일수의 감소는 낮 침습적 외과치치의 이용, 조기퇴원 프로그램의 확산, 가정에서 추적진료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기인한다.

Average length of stay (ALOS) for acute care refers to the average number of days (with an overnight stay) that patients spend in an acute-care inpatient institution. It is generally measured by dividing the total number of days stayed for all patients in acute-care inpatient institutions during a year by the number of admissions or discharges.

- 더 짧은 재원일수가 서비스의 집중과 1일당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재원일수가 너무 짧아진다면, 치료성과 또는 환자의 편안함과 회복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재원일수가 짧으면 건당 비용이 감소한다. 만약 재원기간이 짧아짐으로서 재입원율이 올라간다면, 건당 진료비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 한국에서 높은 평균재원일수는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되며, 병상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은 환자를 더 오래 재원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⑥ 심혈관질환 처치

심혈관질환 처치
Cardio-vascular procedures

▶ 정의

- 관상동맥우회술(CABG: artery coronary bypass graft)은 폐색된 관상동맥을 우회하기 위한 정맥 또는 동맥의 이식술이다.
- 경피적관상동맥성형술(PTCA :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은 끝에 풍선을 부착시킨 카테테르를 동맥계로 통과시켜, 다리의 대퇴동맥에서 시작하여 동맥계를 통해 환부인 관상동맥에 넣는 성형술이다.
  - 흔히 스텐트(stent)로 불리는 지지체를 동맥이 확실히 열려진 채로 있도록 그 부위에 끼워 넣는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반적으로 한 개의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복합관상동맥의 폐색에 대한 이식술을 포함한다.
- 입원환자의 처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보통 재원환자 당 시행된 모든 처치를 계산한다(단, 어떤 국가들은 주된 처치수 또는 하나 이상의 처치를 받은 환자수를 보고하기도 함).
- 외래에서 시행된 관상동맥성형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많은 국가에서 총시행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제시통계 : 관상동맥우회술처치(인구 100,000명당), 경피적관상동맥성형술처치(인구 100,000명당), 관상동맥백관재생처치와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 등

Coronary bypass(CABG) is the grafting of veins and/or arteries to bypass an obstructed coronary artery. It may involve bypassing the obstruction of only one coronary artery, but multiple coronary artery bypasses are most common. Coronary angioplasty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or PTCA) involves the threading of a catheter with a balloon attached to the tip through the arterial system, usually started in the femoral artery in the leg, into the diseased coronary artery

▶ 주요의미

- 혈관성형술 후에 혈관폐색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금속망안 혈관삽입용 스텐트의 등장은 백관재생(revascularisation)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대체하는 경피적관상동맥성형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허혈성심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혈관재형성의 임상시험에서 효율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재형성 처치의 이용 증가가 어느 정도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는지 불명확하다.
- 심장동맥바이패스나 심장동맥혈관성형술의 사용, 신상의료의 총비용 또는 심장학자 수의 차이는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경피적관상동맥성형술의 이로운 점은 사망률의 유의한 감소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좀더 개선시키는 것에 있다.

㉣ 제왕절개

제왕절개
Caesarean sections

▶ 정의

• 제왕절개는 태아의 분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복벽 및 자궁벽을 절개하여 인공적으로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제왕절개율은 출생수 100명당 제왕절개수로 나타낸다.
• 제시통계 : 출생 100명당 제왕절개, 출생 100명당 제왕절개의 증가 등

▶ 주요의미

• 제왕절개는 모성 연령, 다태아의 출생, 제왕절개의 경험, 정상분만 기간을 넘는 재태기간 등 잘 알려진 여러 위험요인이 있으며 모성과 영아에서 훨씬 더 많은 건강문제가 제왕절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 제왕절개율의 상승은 역시 보건의료전문가의 경험이나 환자의 선호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 한국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것은 제왕절개시 정상분만보다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 불필요한 제왕절개는 높은 위험성과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중재술을 의미한다.

Caesarean section rate is the number of caesareans per 100 live births.

⑫ 당일수술

백내장수술
Cataract surgeries

▶ 정의

• 백내장 수술은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백내장은 부분적으로나 또는 수정체 전체가 뿌옇게 되기 때문에) 인공렌즈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대부분 국가에서 외래에서 행해지는 백내장수술이 총 백내장수술수를 나타낸다.

• 일부 국가의 한 보건정보시스템은 주로 병원 밖의 외래시설(예 : 민간 클리닉에서와 같은)에서 수행된 경우 주간수술(day surgeries)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불완전하다. 또한 국가간 백내장수술의 통계관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 수정체의 제거와 인공렌즈로 대체하는 최소한 두 단계를 포함한 때에만 한 개의 증례로 계산할지 또는 빈도로 두 개의 증례로서 볼 것인지 등).

• 수술을 기록하는 법 그리고 주요 요인(예 : 노령인구구조)과 공급 요인(예 : 외래 또는 입원환자에 증례를 행하기 위한 보다 큰 능력)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도 국가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제시통계 : 입원환자와 통원환자의 백내장수술수, 통원에 의한 백내장수술율 등

▶ 주요의미

• 일부 OECD 국가의 경우 백내장수술은 가장 빈번한 수술이며 흔히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술이다.

• 덜 침습적(invasive) 수술 증례와 더 좋은 마취제의 보급, 의료기술의 진전에 의해 외래수술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Cataract surgeries consist of removing the lens of the eye (because of the presence of cataracts which are partially or completely clouding the lens) and replacing it with an artificial lens.

- 이러한 것은 환자에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증재의 단가(unit cost of such interventions)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재원기간을 짧게 함).

• 많은 국가에서 외래 백내장수술의 발전은 대체효과(입원환자 수술을 대체하는)와 팽창효과(총 수술수를 증가시키는) 양쪽 모두의 특성을 갖는다.

• 백내장 수술에 의한 재원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하루 또는 이틀)는 외래수술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성을 나타낸다.

- 의학적 나쁜 징후 / 증상이 없었던 환자를 외래에서 처치하였다면 외래 수술율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외래수술
Day case surgery

▶ 정의

• 외래수술은 전용 수술 유니트(병원 또는 클리닉)에서 수술(보통은 선택, 비응급)을 받고 수술한 날에 퇴원을 말한다.

- 입원환자수술은 수술치치를 받고 시설에서 최소한 하룻밤을 지낸 것을 말한다.
- 어떤 국가에서는 당일(주간) 수술과 외래환자 수술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Ambulatory(or day case) surgery is defined as those patients who are given surgical treatment(usually elective, non-emergency) which are carried out in a dedicated surgical unit (in a hospital or a clinic) and which lead to discharge on the day of the operation. Equivalent terms used in some countries include same-day(or day) surgery and outpatient surgery.

㉡ 의료비와 재정

1인당 의료비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 정의

- 국민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이다.
  - 전체 경상의료비의 두 가지 주요 요소는 개인의료비와 집단의료비이다.
-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가구 포함) 지출을 포함하며 교육훈련, 연구 및 환경보건과 같은 보건관련지출은 제외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정 시점의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전체 소비수준에 대한 국가간 비교시 1인 의료비를 공통의 화폐(US Dollar)로 환산하고 각국 통화의 구매력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 가장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환산율로서 (GDP)PPPs (purchasing power parities)가 사용된다.
- 증가율은 실질가치를 기준으로(GDP의 가격 지수를 기초로) 산정한다.
- 제시통계 : 1인당 의료비(공공과 민간지출),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OECD 평균 대비 변화, 실질의료비의 연평균성장률, 공공의료비와 GDP, 공공의료비의 증가와 1인당 GDP 등

Total expenditure on health measures the final consumption of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i.e. current health expenditure) plus capital investment in health care infrastructure.
Growth rates are calculated in real terms(based on the GDP price index)

▶ 주요의미

- 의료비 규모의 차이는 의료제도의 재원조달, 조직 구조의 국가간 차이, 그리고 시장 및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 회원국의 약 3분의 2는 최종소비지출의 10% 이상을 의료에 지출한다.
  - 높은 투자비율을 갖는 국가는 최종소비지출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의 순위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순위와 달라진다(예 : 아일랜드와 한국 등).
- 각국 정부는 공공의료비를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추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 EU는 지난 2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의 변동추세가 GDP 성장의 변동추세를 1년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
- 모든 국가에서 총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경상의료비)의 비율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보다 훨씬 높다.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Health expenditure in relation to gross

▶ 정의

- 국내총생산 = 최종소비 + 총자본형성 − 수입 + 수출
  - 최종소비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와 사회가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다(최종소비지출은 가계, 일반정부 그리고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 소비지출로 구성됨).
- 총경상의료비(total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는 국민의료비에서 투자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때 투자는 민간부문 투자지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 총투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부문 투자지출만을 의미한다.
- 총의료시설투자(total investment on medical facilities)는 소매 및 기타 의료품의 공급을 제외한 국내 보건의료 제공자의 자본형성을 포함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많은 국가의 국민의료비 자료에는 자본지출이 제외되어 총지출수준이 과소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총의료비가 감가상각충당금과 함께 하위지출의 합계로 계산된다면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본지출에 대한 회계상의 공급코스트 방법 즉,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모든 자본 지출이 누락 없이 계상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 제시통계 : GDP 대비 국민의료비, GDP 대비 의료비의 변화, 최종소비 대비 경상의료비, 1인당 의료비와 GDP 등

▶ 주요의미

- 한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GDP 대비 의료비 비율과 1인당 의료비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 GDP 대비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1인당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By definition, Gross Domestic Product(GDP)=final consumption+gross capital formation-imports+exports. Final consumption includes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used by households or the community to satisfy their individual wants and need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clude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general government and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GDP 대비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1인당 의료비가 높을 수 있다.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에 의한 국가간 상대적 위치와 '최종소비지출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에 의한 국가간 상대적 위치의 차이는(경제 전반과 보건분야에서) 투자수준의 차이와 국제무역수지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기능별 의료비
Health expenditure by function

▶ 정의

- 1인당 의료비 참조.
- 경상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개인의료서비스 / 재화'와 집단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 개인의료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보조서비스, 외래용 의료재화로 구성된다.
  - 집단의료서비스는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건강증진 /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공중위생 및 보건행정으로 구성된다.
- 집단의료비는 예방 및 공중보건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예방 및 공중보건에 대한 지출은 현재 평균 경상의료비의 약 3% 정도이다.
  - 이 수치는 예방에 지출된 총액이 아니고,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예방서비스에 지출된 총액을 포함한다.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applies a consistent functional approach in order to define the boundaries of the health system and examin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llowing the framework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total health expenditure consists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and gross capital formation. Current health expenditure comprises personal health services and goods provided directly to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services, covering tasks of public health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services and health administration, which are delivered to society at large. Personal health services comprise services of curative care, rehabilitative services, services of long-term care, ancillary services to health care, and 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s. The basic functions of care(curative, rehabilitative and long-term care) can also be classified by the mode of production(in-patient, out-patient and home care)

• 의료의 기본기능(치료, 재활, 장기요양)은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입원, 외래, 재가의료).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부 국가에서는 입원의료비가 병원의료비(병원에서 제공되는 외래의료비 등 기타 서비스도 포함)에 연계되어 있는 점이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 보조 서비스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도 하고 외래의료비에 포함되기도 한다.
• 기능적 구조의 국가간 비교시, 가장 큰 제약요소는 장기요양지출 측정방식의 차이이다.
  - 국가별로 장기요양케어가 어느 정도까지 의료비로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제시통계 : 의료서비스, 재화와 상단의료별 경상비, 공중보건과 예방에 대한 지출, 치료-재활 의료에 의한 입원의료비 등

▶ 주요의미

• 의료비가 어떻게 배분되는 지는 수용능력(이용가능한 병상과 의사의 수)의 차이, 공급사에 대한 재정적 유인, 의료행위의 차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경상의료비의 40% 이상을 입원환자 진료에 배분하지만, 캐나다와 스페인은 33% 이하를 입원치료에 배분하고 통원치료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 치료 및 재활의료는 평균적으로 경상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일부 국가에서 이 비율이 낮은 것은 민간가계의 비공식케어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 치료기술의 변화, 의료기술의 혁신, 시불체계의 개혁,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모색 등 모든 것이 장기간에 걸쳐 작용하여 의료비의 기능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 일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입원의료를 줄이고 외래나 재가의료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많은 OECD 국가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당일 퇴원의료비가 현재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배분되는 의료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총보건의료비
Total expenditure on health care

▶ 정의

•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총지출
  - 개인부문 보건지출 = 입원진료부문지출 + 외래진료 + 의약용품
  -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로 구입한 의약품과 서비스(예 :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를 포함하는 최종 가계소비지출과 공공부문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비용부담금
  - 정부제공 보건서비스(예방접종, 계몽과 같은 공중보건 프로그램, 소수집단에 대한 서비스 및 학교, 교도소 재소자, 군인에 대한 보건서비스 등)
  - 임상, 의학실험 및 기타 유사 연구에 대한 투자
  - 보건행정경비
  - 연구개발(제약회사의 지출은 제외)
  - 직업보건서비스
  - 후원기관, 자선단체 및 비정부보건기획

총경상지출
Total current expenditure

▶ 정의

•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그리고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의 보건부문 총지출에서 보건부문에 대한 총투자지출(공공부자지출 · 민간투자지출)을 뺀 것이다.
  -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는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최종소비지출,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부문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의료 및 보건비용 최종소비지출을 포함하는 총의료비용지출에 대한 내재적 부가디프레이터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총투자지출에는 공공투자지출과 민간투자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투자지출만을 포함시킨다).

약제비
Pharmaceutical expenditure

▶ 정의

• 약제비는 처방약 및 자가처방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약사에 대한 보상부분이 약가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약제비에 포함된다. 병원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은 제외된다.

- 최종적인 약제비는 도매 및 소매의 마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외래산료용 의약품구입에 대한 총지출

- 의약품의 소비에는 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과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생활의약품(판매대에 진열된 약품)이 모두 포함된다.
-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 가능한 생활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의약품비에서 별도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의사의 소제비만은 포함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지표의 활용 : 1인당 약제비,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약제비와 국민의료비의 연실질성장 등

▶ 주요의미

• 국가간 소득 차이 또한 약제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 규모, 소비구조, 가격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약제비 수준은 국가간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cludes expenditure on prescription medicines and self-medication, often referred to as over-the-counter products. It also includes pharmacists' remuneration when the latter is separate from the price of medicines. Pharmaceuticals consumed in hospitals are excluded. Final expenditure on pharmaceuticals includes wholesale and retail margins and value-added tax.

상당한 차이가 있다.

-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약제비의 60%는 공공재원으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과 그리고 작은 규모이지만 민간보험으로 충당된다.
  - 의약품이 국가 보건프로그램 및 공보험(publicly financed insurance)에 의해 급여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급여되는지가 국가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된다.
-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은 OECD 국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최근 신약의 도입과 확산이 전체 의료비를 끌어 올리는 주요 요인에 속하는데, 대부분 국가의 경우 약제비의 증가율이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보건의료재원
Sources of financing for health care

▶ 정의

- 재원은 최종자금원(가구, 고용주, 국가) 및 재원조달제도(예 : 강제보험 또는 임의보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 재원을 보건계정체계(SHA : system of health accounts)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원조달제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 공공재원은 일반정부수입과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 민간재원은 가계의 본인부담, 민간건강보험 및 여타 민간사금(비정부단체 및 직장보건의료에 제공하는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 사적 재원조달은 가구의 자체부담(out of pocket payments : 주로 사용자가 조달하고, 근로자가 과세소득 산정 면제로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사적 건강보험에 의한 제3자 지급방식, 지역의료제도와 같은 사용자 직접 의료급여, 기타 자선단체 및 유사기관에서 식섬 제공하는 급여로 구성된다.
- 본인부담은 보험급여가 안되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출이다. 이는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그리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비공식적 지불로 구성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적으로 사용한다.
  - 공공재원은 사회보험 재원조달 방식을 가진 국가(예 : 프랑스, 독일)에서는 일반정부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고, 중앙/지방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을 책임진 국가(예 : 핀란드, 영국)에서는 정부수입에 국한한다.

"Source of financing" might be used in two senses : ultimate sources of funding (households, employers and the state)and financing schemes / arrangements(e.g., compulsory insurance or voluntary insurance, etc.). Here "Source of financing " is used in the sense of financing arrangements as defined in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Public sources include general government revenues and social security funds. Private sources cover out-of-pocket payments of households,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order private funds, such as from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private companies funding occupational health care.

- 본인부담지출의 가계에 대한 부담은 최종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 지출의 비율로도 측정할 수 있다.
- 제시통계 :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비율,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지출 변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민간건강보험, 국민의료비의 본인부담지불 비율 등

▶ 주요의미

- 보건의료의 재원조달방법의 차이는 의료비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 민간재원의 효율적 구성은 국가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 민간건강보험이 국민의료비에서 점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약 6%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이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한다.
- 많은 OECD 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공공재원 점유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특히 약의 경우, 공적 부담의 일부를(환자에게 직접, 또는 민간건강보험을 통해서) 민간부문으로 넘긴 정책의 결과이다.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보건의료지출에서 공공부담이 증가한 것은 급여와 수급자격이 있는 인구의 비율 증가와 함께 노인 및 극빈자의 의료 욕구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의료보상(medicare)과 의료보호(medicaid)의 수준 및 적용을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다.
- 민간건강보험의 비중이 큰 국가들은 본인부담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민간건강보험과 본인부담의 중요도 사이의 연관성은 약하다.
  -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진료의 비형식적인 보충적 지불은 본인부담지불 수준이 아니라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관련지출
Expenditure on health related function

▶ 정의

- 보건부문 인구개발에 대한 총지출 및 공공지출과 의약품연구개발에 대한 총지출
  -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 보건교육훈련부문에 대한 지출
  - 많은 국가의 경우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와 함께 이루어진 훈련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 의학연구에 대한 교육부의 지출이나 가계의 기여금은 전통적으로 교육기능의 지출로 본다.
- 환경보건부문에 대한 지출
  - 환경보건지출을 보건 부문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다 좋은 건강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기와 물의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출과 투자를 포함한다.
  - 보건지출이외의 다른 지출로 포함시키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건부문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지출
  - 질병현금급여(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손실분에 대한 현금급여를 포함)
- 총경상의료비(total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 국민의료비에서 투자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 때 투자는 민간부문 투자지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 총투자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공부문 투자만을 의미한다.
- 공공의료비(public expenditure on health)
  -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서비스생산 또는 구입에 공공부문이 지출한 금액이다. 이 때 공공부문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험체계를 포함한다. 보건의료부문에서 공공부문 자본형성은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시설투자, 민간병원 신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본이전과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합계이다. 여기에는 지역공무원을 위한 기금도 포함한다.

- 공공부문 경상의료비(public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는 공공부문 의료비에서 공공부문 투자를 제외한 부문이다.
- 의료시설에서 대한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on medical facilities)의 공공부분 보건의료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와 민간부분의 병원 신증축 및 장비구입을 위한 공공부문의 자본이전을 포함한다.
- 개인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personal health care)은 사회에 제공된 서비스를 제외한 개인에게 직접 제공된 의료서비스 중 공공부문에서 지출된 부분이다.

보건의 비의료적 결정요소

② 보건의 비의료적 결정요소

담배 소비
Tobacco consumption

▶ 정의

• 1일 담배 흡연량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건강면접조사에서 흡연 습관의 표준화된 추정치의 부재로 국가간 비교는 한계가 있다.
  - 국가간 질문의 구성, 응답범주, 조사방법의 차이가 있다.
• 흡연자의 1일 담배 소비량의 합계 / 흡연자수
• 담배소비량
  - 담배의 총소비량(g) / 15세 이상 인구
  - 15세 이상 1인당 담배류의 소비량(g)
  - 궐련(cigarettes), 시가(cigars), 세여송연(cigarillos) 및 손담배(rolling tobacco) 등 모든 종류의 담배가 포함되며, g 단위로 환산한 총소비량을 분자로 한다.
  - 환산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궐련은 1g, 시가는 2.5g, 세여송연은 1.5g으로 환산한다.
  - 15세 미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15세, 16세, 18세, 20세 이상 등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The proportion of daily smokers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15 years and over reporting to smoke every day

• 흡연율은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15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 15세 이상 흡연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본자의 흡연자는 매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한다.
  - 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5세 이상을 택하고 있으나, 다른 범위의 연령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 제시통계 : 매일 성인흡연율, 매일 흡연율, 성인인구의 흡연율의 추이, 담배 소비와 폐암발생률 등

▶ 주요의미

• 흡연은 예방 가능한 가장 큰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
  - 조기사망의 선행사인 중 최소한 두 가지인 순환기계통의 질환과 여러 암의 위험요인이다. 또한 호흡기계통의 질환의 주요 요인이며, 임신 여성의 흡연은 영아의 저체중과 질병을 발생시킨다.
• 22년간의 시차를 두고 OECD 국가간의 담배 소비량(1인당 g)은 폐암 발생과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OECD 국가 중 담배 소비가 많은 국가는 15~25년 후에 높은 폐암 사망률과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
• 담배소비의 뚜렷한 감소는 담배 관련 질환의 증가에 따른 공공인식캠페인(public awarenesss campaign), 광고 금지, 증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에 기인한다.

알코올 소비
Alcohol consumption

▶ 정의

• 알코올 소비는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리터(litres)로 표시한 순수 알코올의 연간배량으로 나타낸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주류의 총소비량(순수 알코올 기준, 리터) / 15세 이상 인구
  - 맥주, 포도주, 소주, 화주(독한 술) 및 기타 주류의 소비량을 순수 알코올의 양(리터)으로 환산한 소비량을 분자로 한다.
  - 환산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류는 4-5%, 포도주는 11~16%, 화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되고 있다.
  - 이탈리아는 14세 이상, 스웨덴은 16세 이상, 일본은 20세 이상의 소비인구를 집계한다.
• 제시통계 : 1인당 알코올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litres), 1인당 알코올 소비의 변화(15세 이상 인구), 알코올 소비량의 추이, 간경화증 사망과 알코올 소비량 등

▶ 주요의미

• 적정량의 술 소비는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여러 가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 과음은 간경변증, 특정 암, 심장질환, 뇌졸중, 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태아의 알코올 노출은 선천성 기형과 정신지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
  - 또한 음주는 사고와 손상, 폭행, 폭력, 살인, 자살에 의한 사망 및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lcohol consumption is defined as annual sales of pure alcohol in litres per person aged 15 years and over.

- 성인의 1인당 술 소비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유용하지만, 음주 패턴에 의해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을 파악할 수는 없다.
  - 음주는 대부분 젊은 남성인구 같은 소수집단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정보는 음주 습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인구 조사에서만 얻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술 소비가 높은 국가가 소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10~15년 후 간경화증에 의한 높은 사망률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간경화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술 소비의 감소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 국가별, 시계열별로 술 소비의 변동 추세는 음주 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음주를 통제하는 성책을 반영한다.
  - 광고 규제, 판매 제한 및 과세는 술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식품 소비
Food consumption

▶ 정의

• 식품 소비는 실제로 섭취한 음식이 아니라 섭취가 가능한 음식을 말한다.
  - 과일과 야채의 섭취에는 감자와 기타 전분성 음식을 제외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음식 섭취의 자료원은 FAO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이다.
  - 과일과 야채의 섭취에는 감자와 기타 전분성 음식을 제외한다.
• 영양섭취량(Kcal per day and per capita)
  - OECD의 전체 식품수급표는 각 식품의 국내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수입량을 더한 통계차와 재고량을 수록하고 있다. 식품의 이용형태는 식용, 종자, 가공식품과 기타 제품의 원료, 손실, 통계적 차이로 구성된다.
• 식품은 영양소 단위로 변환되어 합해진다. 총가용량에서 이용량을 뺀 것이 총 소비량의 추정치가 된다. 총 소비량의 추정치에는 가공공정의 손실양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는 추정치에서 제외된다.
• 1인당 소비 가능한 음식의 양에 관한 자료는 국가별 전체적인 음식 섭취의 추이만을 제공한다.
  - 이러한 정보는 보다 세부 영양조사 또는 일반 건강조사에서 영양의 기본 측정 단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 제시통계 : 총 칼로리 소비량, 설탕소비량, 과일과 야채소비량 등

▶ 주요의미

• 대부분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과체중과 비만율의 증가는 상당 부분 칼로리 섭취량과 소비량간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한다.

The food consumption data presented in this section come from the FAO Nutrition database. They refer to food available for consumption(i.e., reaching the consumers) rather than food actually consumed

- 비만은 신체활동의 부족과 음식의 과소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과다한 포화지방, 설탕 소비, 과소한 과일, 그리고 야채 섭취 등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식단이 관상동맥성 질환, 당뇨병, 기타 암을 포함하는 많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음식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총 칼로리 섭취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섭취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
  - 설탕의 섭취 과다는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 충치,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현재 FAO/WHO의 권고에 의하면 특히 식품에 첨가된 설탕(주로 탄산음료, 과일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등)은 총 1일 칼로리 섭취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 반면에 과일과 야채 섭취는 건강 식단의 주요 요소로서 상당히 권장된다.
  - 최근 WHO/FAO 보고서에서는 심장질환, 암,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매일 400g의 과일과 야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 일반 사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는 매일 5회의 과일과 야채 섭취를 장려하는 공공교육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과체중과 비만
Overweight and obesity

▶ 정의

• 과체중과 비만은 체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과도한 체중을 말한다.
  - 현재 WHO 분류 기준(WHO, 1997)으로 BMI가 25-30이면 과체중, 30을 초과하면 비만으로 정의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가장 널리 사용하는 과체중 및 비만 측정은 한 개인의 신장 대비 체중 상태를 평가하는 단일 수치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 체중/신장^2, 체중은 킬로그램, 신장은 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체중과 비만율은 건강면접조사를 통하여 자체 보고한다.
  -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경우 실제로 사람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건강검진조사에서 수치를 얻는다.
  - 건강검사에서 나온 수치들이 일반적으로 건강면접조사의 수치보다 신뢰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건강검진조사가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 WHO 분류 기준이 모든 인종 집단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낮은 BMI(예 : 아시아 인)의 높은 BMI 수준에서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을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 제시통계 : 체질량지수 30 이상(비만인구)의 성인인구의 백분율, 체질량지수 30 이상(비만인구)의 성별 백분율, 성인인구 중 비만율의 증가 등

Overweight and obesity are defined as excessive weight presenting some health risks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of body fat.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 of overweight and obesity is based on the body mass index(BMI), which is a single number that evaluates an individual's weight status in relation to height(weight / height^2 with weight in kilograms and height in metres).

▶ 주요의미

-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의 질환(천식), 근골격계통의 질환(관절염), 기타 암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비만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 미국의 경우 성인의 체중 증가를 설명하는 주 요인은 칼로리 섭취의 증가이며,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신체활동의 감소가 주 요인으로 나타난다.
- 비만 관련 만성 건강문제로 인한 비용은 흡연 및 과음 관련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실질적인 식품의 가격 하락과 신체 활동시간의 감소와 같은 여러 생활습관 및 환경상의 요인들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과체중과 비만을 증가시킨다.

인구 및 경제적 배경

① 총인구와 인구구조

총인구와 인구구조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 정의

- 총인구는 해당 년도의 중앙시점에 해당 국가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모든 국민과 그 국가의 영주 외국인을 말한다.
  -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상주개념에 의한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상주 인구는 한 조사시점에서 국내에 통상적으로 살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제시통계 : 총인구, 인구의 백분율 변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등

▶ 주요의미

-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한 것으로 고령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다.
  - OECD 국가에서 자연 증가에 의한 인구성장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소하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정부와 개인의 건강 및 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Total population is defined as all nationals present in, or temporarily absent from, the country and foreigners permanently settled in the country, in the middle of the year.

- 연금 및 다른 사회적 급여뿐 아니라 건강 및 장기요양의 수요와 재원조달과 같은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건강과 장기요양이 더욱 필요하므로 인구의 고령화는 이 부분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출산

출산율
Fertility rates

▶ 정의

- 특정 년도의 출산율은 어떤 여성이 현재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하는 각 연령(15-49세 사이)에서 가임기간 중에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제시통계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의 추이 등

▶ 주요의미

-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사망률 감소와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이다.
  - 여성 1인당 2.1명의 합계출산율이면, 순이민과 유입이 없고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의 전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 개인의 행태와 각국의 사회적, 역사적으로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 피임법의 급속한 보급, 출산의 지연 등
- 인생 후반까지 출산을 연기하는 여성 집단이 많이 있으면 단기적인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미래의 특정 연령(예, 30세) 이상에서 출산율 증가로 반전할 수 있다.
- 여성이 교육(예, 육아 및 육아 휴가를 통해서)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 여성에게 허용하는 가족친화성책과 세금 및 가족급여의 효과 등 모두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The fertility rate in a specific year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 women can be expected to bear over the course of her childbearing years if she were to give birth to children at each age(between 15 and 49) in agreement with prevailing age-specific fertility rates.

② 국내총생산과 소득불평등

국내총생산과 소득불평등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income inequality

▶ 정의

- 기타 관련통계의 '국내총생산' 참조.
- 소득분배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인구의 누적비율을 소득의 누적점유율에 대한 그림)과 45도 선(완전평등선 : line of perfect equality) 사이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 지니계수는 "완전평등(perfect equality)"의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perfect inequality)"의 경우 100 사이의 범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증가는 불평등의 증가를 나타낸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GDP 측정에는 1) 모든 거주 생산자(resident producer)의 부가가치의 합계 2) 노동 및 자본에 의해 획득한 소득의 합계 3) 모든 국내 시출에 수출을 더하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을 뺀 합계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OECD는 세 번째 방법(지출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간 GDP의 비교는 단순히 시장 환율이 아니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를 기준으로 한다.
  - 구매력평가는 어떤 국가에서 일단의 재화와 용역을 미국에서 미화로 사는

There are the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measuring GDP : 1) to sum up all the value added by resident producers; 2)to take the sum of income received by labour and capital; or 3)to add up all domestic expenditure plus exports, less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The data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third approach(expenditure-based).
Income distribution i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The Gini coefficient is defined as the area between the Lorenz curve(which plots cumulative shares of population, from the poorest to the richest, against the cumulative share of incomes that they receive) and the 45° line("line of perfect equality"). The values range between 0 in the case of "perfect equality" and 100 in the case of "perfect inequality". An in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thus represents an increase in equality.

것과 같은 그 국가 화폐의 구매력을 반영한다. 보통 가난한 국가의 생활비가 낮아서 PPP를 이용하여 1인당 소득을 산정하면, 일반적으로 OECD의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간 차이가 감소한다.

• 세시통계 : 1인당 GDP, 1인당 실질 GDP의 연성장률, 소득불평등(지니계수) 등

▶ 주요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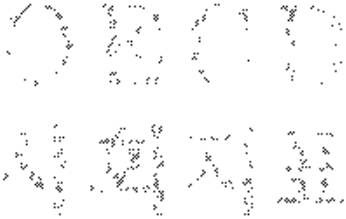
•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한국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1인당 GDP 자체는 단지 국민의 화폐소득의 평균수준으로 특정국가의 소득분포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 국민총소득(GND)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실제 소득의 측정치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GNI 또는 GDP의 이용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의 건강수준이 더 높아지는 관계가 있지만, 국민소득이 높은 수준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덜 분명해지고 비슷한 1인당 소득을 가진 국가간에 건강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국민소득의 분배 또한 건강상태에 대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국가별 기대여명과 각국의 소득불평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는 기대여명이 더 높을 수 있다.



일반상황

1인당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per capita

▶ 정의

- 개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로서 시장의 상기래에 가반은 분 지표이다.
  - 안전, 여가, 비공식적 활동, 아이 보육과 같은 가사와 같은 범위는 제외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GDP의 지출기반 측정 수,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을 제외한 국내 공급에서 총 최종지출의 합에 기초한다.
  - 지출은 수, 보조금을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에서 간접세의 가치를 포함한 시장가격으로 측정한다.
-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지수에서, GDP의 명목가치는 각국의 총 주서 인구수의 추정치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 사회생활 수준의 지표로서, 1인당 GDP는 경제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든 생산과 비생산된 자산(예, 천연자원)의 소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GDP per capita is the most commonly used indicator of living standards across countries. As an indicator of individual's living standard, measures based on market transactions exclude dimensions such as security, leisure time, informal activities and home production such as caring for one's own children.

•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각국의 국내 화폐로 계산된 GDP의 가치는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공통 단위로 변환한다.
  - 미국에서 1달러로 구입 가능한 같은 재화를 각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국가의 화폐 크기를 나타낸다.
• 제시통계 : 국가간 1인당 GDP, 총사회지출과 1인당 GDP 등

▶ 주요의미

• 1인당 GDP는 각국의 사회 상태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단지 부분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1인당 GDP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1인당 GDP 수준과 1인당 총사회지출의 수준과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 사회지출의 많은 부분이 소득 대체(실업자나 고령자에 대한 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고 단지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는 공해를 줄이는 것과 관련되거나 법적 소송과 연관된 것들과 같은 "방어적(defensive)" 지출을 포함한다.
• 높은 1인당 GDP가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 일부 사회지출의 항목들(예, 건강관리)은 높은 소득 탄력성을 갖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보장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증가한다.
• 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적 측정 지표인데, 사회 상태에 대한 좀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령부양비
Age-dependency ratios

▶ 정의

-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는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를 말한다.
- 유년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는 향후 연령 분포형의 지표를 제공하는 지표로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을 말한다.
  - 유년부양비의 감소는 장래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나타낸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을 기초한 것이다.
- 제시통계 : 연령부양비 추계, 2050년까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이 되는 국가가 거의 50%가 된 것인 등

▶ 주요의미

- 고령 연금과 같은 연령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 수는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주요 요소는 퇴직 후 기대여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등이다.
- 연령부양비는 사회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문제보다 사회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인 환경을 정의하는데 기여한다.
  - 생산가능인구는 장래의 사회보장에 기여할 인구수를 나타내는 데에 불완전한 지표이며, 장래의 연령에 관련된 지출(보건과 장기요양비용과 같은)을 추정하기 어렵다.

A useful way of assessing the degree of population ageing is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hich compares the number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to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similary, the youth dependency ratio(the ratio of persons aged below 15 to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also provides an indication of perspective age imbalances.

출산율
Fertility rates

▶ 정의

- 합계출산율(TFR : total ferta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을 마칠 때까지 살고, 매년 평균 출산율에 맞추어서 출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여성이 출산할 아이의 수를 나타낸다.
  - 가임기간은 통상적으로 15세부터 44세까지를 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49세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은 각국의 인구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로서, 가임기를 마친 여성 집단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한 아이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유럽협의체, Eurostat 및 국가별 자료의 연도별 출판물에 기초한다.

▶ 산출방법 및 적용

- 완결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까지 해당 여성 집단에서 특정 연령의 출산율을 누적하여 산출한다.
- 제시통계 : 대부분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 이하임, 완결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초산연령의 증가 등

▶ 주요의미

- 출산율은 소득, 교육, 종교 및 각국의 사회·역사적 배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The "total fertility rate" in a specific year is the number of children that would be born to each woman if she were to live to the end of her child-bearing years and give birth to children at each age in agreement with prevailing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nother important indicator for assessing demographic conditions in each country is the "completed fertility rate", which measures the number of children that a cohort of women who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childbearing years had during their reproductive life.

- 가족친화정책, 세금, 교육, 사회적 보조, 퇴직에 관한 정책 등
- 출산율 감소의 잉항 요인으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증가, 결혼의 시연,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산, 사녀의 부모로부터 늦은 독립을 포함한다.

• 각국의 합계출산율은 연령구조와 무관한 반면, 출산시기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첫출산 평균연령(산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날짜에 산모의 연령)"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 여성 1인당 2.1명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한다(이민이나 사망의 감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외국인과 외국출생인
Foreigners and foreign-born population

▶ 정의

• 이민자는 이민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 귀화나 출산이 이민자의 숫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총인구 대비 외국인과 외국 출생인의 비율로 나타낸다.
  - 불법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시통계 : 국가간 외국인과 외국출생인구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외국출생인구의 증가 등

▶ 주요의미

• 외국 노동자들의 높은 유입은 국가의 노동인구의 장기 감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중요성은 향후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 외국인은 때때로 이민 국가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

In some cases, immigrants are persons who do no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host country. In others, they are persons born abroad, implying that their naturalisation and fertility do not affect their number.

회적 긴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 이러한 긴장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는 지역에서 악화될 수도 있으며, 이민 2세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이민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으로서, 높은 이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공공지출부담을 단지 부분적으로 줄일 뿐이다.

결혼과 이혼
Marriage and divorce

▶ 정의

- 법적 결혼과 이혼을 말한다.
- 결혼기간은 별도로 표시된 지역을 제외하고 이혼 전까지의 평균동거년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결혼율은 총인구 대비 매년 법적 결혼수를 나타낸다.
- 이혼율은 전체 인구 대비 특정 년도의 해체된 법적 이혼수를 나타낸다.
- 결혼율과 이혼율은 혼외 동거커플이나 결혼한 별거커플을 고려하지 않는 등 비공식적인 관계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결혼 100건 당 이혼수는 동일 해의 결혼 대비 이혼을 비교한 비율이다.
- 실제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 대단서 측정은 자료의 유용성과 통계와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제시통계 : 많은 국가에서 혼인율의 전 감소, 이혼율의 점진적 증가, 결혼당 이혼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 등

The crude marriage rate expresses the number of legal union formations in each year as a ratio to the total population. Similarly, the crude divorce rate reveals the number of these same legal unions dissolved in a given year, also explessed with respect to population size.

▶ 주요의미

- 결혼과 이혼지표는 사회 내에서 가족구조에 대하여 불완전한 관점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혼인율과 이혼율이 함께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사회·경제적 요인의 현저한 변화는 OECD 국가의 사회규범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다.
  - 높은 경제력, 가정에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변화, 여성노동력의 시장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이 가족형성뿐만 아니라 가족해체에 관계되어 관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 1970년대의 법 개혁과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이혼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 이혼율은 가장 낮은 국가에서 이혼을 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종교적 고려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많은 국가에서 비공식적 가구형태와 동거가 좀더 일반화됨에 따라 혼인율은 감소하였으며, 혼인상태에서 가능한 재정적 보호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었다.
- 가장 높은 결혼의 지속기간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혼율과 이혼 전 평균결혼지속기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 자활 관련

고용
Employment

▶ 정의

• 고용은 남성 또는 여성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을 급여, 이윤, 가족의 이익(현금 또는 현물)을 위해 일하거나 질병, 휴일 또는 산업 분쟁을 이유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결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취업 / 인구 비율은 자영업 또는 유급 고용된 경제활동인구(15세와 64세 사이의 인구)의 비율이다.

• 고용과 임시직에 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노동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며, 비공식적 고용은 배제한다.

- 임시직은 한시적으로 직업이 있는 피고용인이다. 이는 고정된 기간의 계약, 일용직, 계절직 등을 포함한다.

• 제시통계 : 여성취업률의 큰 증가, 임시직 취업률 비중의 큰 차이, 고용지표 등

▶ 주요의미

• 비공식적 고용, 임시직과 자원봉사는 높은 비상근의 유동적인 노동시간, 임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ILO) definition of employment, as implemented in labour force surveys of OECD countries, considers a person as "employed" if he / she works for pay, profit or family agaun(in cash or in kind), for at least one hour per week, or is temporarily absent from work because of illness, holidays or industrial disputes. The employment / population ratio presented here i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persons aged between 15 and 64) who are self-employed or in paid employment.

시계약, 자영업, 비정규직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더욱 분명하게 구별된다.

- 재정적 이익, 자기실현, 사회적 교류, 지적 자극, 그리고 승진과 같은 다양한 취업 목적은 동일하게 다양한 범위의 고용상태를 가져온다.
- 198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에 대한 완화된 규정이 많은 국가는 임시직의 큰 증가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종신계약에 대한 고용보호법이 엄격한 국가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업
Unemployment

▶ 정의

- 표준화된 ILO 정의는 조사의 기준 주간(reference week) 동안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자 또는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조사 전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 자를 실업자로 정의한다.
  - 신체 부자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교육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실업률은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개인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직인구의 비율이다.
- 실업 자료는 주로 국가노동력조사에 기초한다.

The rate of unemployment is the proportion of people out of work among the active population of working age.
The standardised ILO definition considers as unemployed those who did not work for at least one hour, either as an employee or as self-employed, in the reference week of the survey;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for work; and that have taken specific steps to seek employment in the four weeks preceding the survey.

• 제시통계 : 실업률의 증가, 국가간 장기실업 수준과 추이의 큰 차이, 실업지표 등

▶ 주요의미

• 실업률 수준과 더불어 실업의 존속기간과 장기실업의 발생은 개인의 복지, 가족생활, 사회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장기 실업률의 발생이 각국의 구조적 노동시장 요인에 대한 좋은 지표이지만, 그 크기의 변화가 주로 경제활동의 주기와 관계가 있다.
• 실업의 추세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노동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정책과 같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실업자가 경험하는 재정적, 사회적 고통은 실업의 기간, 다른 가족의 근로여부와 공공정책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장기화된 실업기간은 가계소득, 사생생활, 정신건강에 해로운 경향이 있고 실업자 개인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된다.
  - 실업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기술향상과 교육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 훈련받은 노동자가 실직 후에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기간의 경험과 훈련은 실직 후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장기실업과 관련된 몇몇 사회적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직가구
Jobless households

▶ 정의

- 개인(실직가구에 속한 사람수) 또는 가구(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정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경제활동인구의 가장이 있는 가구 중 아무도 일하지 않는 가구에 사는 모든 개인들(아동을 포함하여)로 정의한다.
  - 적어도 경제활동인구(15~64세) 한 명이 있는 가정 중 어떠한 가족구성원도 유급고용에 있지 않은 가구로 정의하기도 한다.
  - 근로소득은 지난 한 해 동안 실제 근로소득 또는 사영업 소득에 의해 정의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가구소득조사와 미시자료(Micro datasets)에 기초한다.
- 제시통계 : 국가간 실직가구에 속한 개인 비율의 차이, 실업과 실직의 추이 간에 큰 관련이 없음 등

▶ 주요의미

- 가족의 어떤 성인 구성원도 유급고용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난과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다.
  - 실직가구원은 대부분 빈곤자로 구성되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공적급여에 의존한다.
- 실직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직업을 가진 구성원의 수직 변화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두 변수간의 관계는 강하지 않다.
- 실직가구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는 근로 성인은 교육 상, 그리고 장래의 직업에서 인적 성취간에 영향을 주는 역할 모델로서 요인이 부재하다.
- 실직가구의 감소가 가난을 배제하는데 중요하나, 편부모 가구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취업률의 평균 증가는 편부모의 확산에 따른 빈곤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Indicators of jobless households can be defined in a variety of ways. They can refer either to individuals (i.e. the share of persons in jobless households) or to households(the share of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 대부분 국가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의 증가와 직업의 양극화는 좀더 높은 고용이 좀더 낮은 실직으로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실업자와 비활동자 상당수가 다른 성인 실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사회적 불안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가정의 생활환경은 복지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취업모
Working mothers

▶ 정의

• 취업모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15-64세의 어머니의 고용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취업모율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15-64세의 어머니에 대한 고용률이다.
  - 항목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3세 이하, 3-5세, 6-14세로 구분한다.
• 어린 자녀의 주어진 연령 그룹에 존재하는 특성 분포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제시통계 :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인 취업모의 증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유자녀 여성 취업률의 증가, 시간제직 취업모 비율의 높은 증가 등

▶ 주요의미

• 일반적으로 노동조사에서 출산과 육아휴가 중인 어머니는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경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는 육아 관련 휴가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노동조사에서 고용된 것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The employment rate among mothers aged 15 to 64 according to the age of their youngest child. Labour force surveys of OECD countries generally regard thos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s employed persons.

-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여성의 고용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비상근 직업은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더 나이 많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서 좀더 흔하다.
  -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 비상근 직업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어머니에게서 가장 높은 반면,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은 상근 직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 공공정책은 흔히 개인 사율의 향상, 남녀평등, 빈곤 특히 아동의 빈곤 감소, 부가적인 노동시장 자원의 결집과 같은 넓고 다양한 이유로 어린 자녀를 가진 많은 어머니에게 유급 노동시장의 참여를 장려한다.
- 취업모에 대한 각 정책의 중요성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 공공정책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역설이나 육아 관련하여 관대한 공공 휴가 제도와 보육 서비스는 북유럽 국가 어머니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 네덜란드의 경우 "가정과 일의 조화(family-work reconciliation)"가 주로 비상근 취업을 고양시킨다.
  - 미국의 경우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직장 내의 혜택과 민간보육제도의 광범위한 이용이 유자녀 여성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게 한다.

실업급여
Out of work benefits

▶ 정의

• 실업급여는 가장이 실직되었을 때의 가계 소득과 실직 전 고용되었을 때의 가계 소득을 비교하여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 고려된 가계소득은 고용상태이건 아니건 급여에서 지불한 세금을 제외한 순수입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실업 대체율은 개인은 40세이고 22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가정한다.
  - 홀로 사는 사람과 배우자가 일도 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받지 않고 보육료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4세와 6세인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가구에 대해서 산정한다.
• 다양한 가족유형과 실업 지속기간에 따라 이러한 대체율을 평균하여 전반적인 지표가 산정된다.
• 실업대체율에 대한 추정은 다양한 "전형적(typical)"인 경우의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개별국가에 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 모형에 기초한다.
  - 추정은 공공부조의 자격유무에 따라 두 경우로 계산되는데, 다양한 가족유형과 실업지속기간에 따라 이러한 대체율을 평균하여 전반적인 지표가 산정된다.
• 제시통계 : 국가간 순실업대체율의 큰 차이, 순실업대체율은 유자녀 편부모와 양부모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다 등

Out-of-work benefits compare the income of a household when its head is out of work to that it previously enjoyed when its head was employed. The household income considered is "net" of the benefits received and taxes paid when in and out of work.
Out-of-work replacement rates vary according to the length of time spent receiving benefit.

▶ 주요의미

- 실업대체율은 사회의 고용과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의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유급고용을 시작하는 재정적 유인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낮은 급여수준은 적합하고 지속적인 직업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반면에, 매우 관대한 급여는 개인들에게 구직을 위한 재정적 동기를 거의 주지 못할 수 있다.
  - 급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금과 다른 급여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 실업급여에 의존할 때와 취업 시의 가계소득을 비교한다.
- 실업대체율은 가족구조와 실업기간에 따라 다르다.
  - 실업 대체율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실직 당시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일정 기간을 모두 소진하면(대개 자산이 매우 적은 경우로 한정되는) 공공부조(복지)급여에 의존한다.
  - 평균적으로 실업 초기에는 약 70%이고 장기실업에서는 60%이다. 실업 첫 달의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실업 5년 후의 약 1/3을 상회한다.
  - 편부모와 유자녀를 둔 양부모 가족의 순대체율은 일반적으로 무자녀 가족보다 높다.
- 공공부조가 장기실업 상태에서 중요한데,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일부국가의 경우 실업의 초기에 가구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동시 수령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최저생계급여
Benefits of last resort

▶ 정의

•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중위 60% 이하의 가처분소득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가계가 연중 내내 사회부조급여에 의존하고 다른 소득 원천(예, 다른 사회적 보호급여로부터 실업, 장애 또는 근로소득 등)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 소득-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3개의 절징수준(가계소득 중앙값의 40, 50 및 60%)과 비교한다.
• 제시통계 : 일반적으로 최저생계급여는 빈곤기준 이하로 설정, 최저임금소득자의 경우에 빈곤을 벗어나기 위하여 양부모의 취업은 필수직임 등

▶ 주요의미

• OECD 국가의 세금 급여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순급여수준(net benefit levels)은 여러 기준과 상대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 순급여수준은 각 개인이 고용되었더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에 대하여 재취업할 재정적 동기의 측정을 제공한다.
  - 최저생계급여는 소득-빈곤의 비교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준 이하에서 결정된다.
• 순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구로 인식되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절정점(cut-off points)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의 역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낮은 수입 잠재성을 가진 노동자의 빈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부모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저렴한 보육의 제공과 같은 다른 정책의 역할이 강조된다.
  - 한 사람의 수입은 가족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When compared to the income cut-off points that are commonly used to indetify "poor" households, they inform about the capacity of benefit systems to assure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 정의

- 최근 개정된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서 교육수준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 교육수준은 초등 및 저위 중등교육(primary and lower secondary), 중등교육 후 대학교육이 아닌 상위 중등교육(upper secondary), 그리고 고등교육(tertiary : 대학교육과 특수 직업교육)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 국가의 교육체계가 명확히 저위 및 고위 중등교육의 수준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중등교육의 초기 3년은 저위 중등교육으로 간주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노동력조사에 기초한 것이며, 교육수준은 교육의 특정수준을 이수한 25-64세의 인구의 비율에 기초한다.
- 제시통계 : 국가간 교육수준의 차이, 상위 중등교육 수준의 달성은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가짐 등

▶ 주요의미

- 인구의 교육수준은 국가 인적 자본의 가장 일반적인 추정치로 사용되고 있다.
- 교육에 대한 개인의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보수를 통해서 보상이 된다.
  - 취업률과 소득수준의 경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위 중등교육보다 높다.
- 교육 및 훈련을 잘 받은 인구는 국가와 개인의 사회 및 경제적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
  - 평생교육정책은 지속적인 기술 신보에 대한 요구와 인력시장의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The recently refin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 defines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great detail. The indicators shown here distinguish among three broad groupings :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which includes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and tertiary education/university education and advanced vocation-specific programmes).

퇴직연령
Age of retirement

▶ 정의

• 퇴직은 일반적으로 "본(main)"직으로부터 업무의 종단을 말한다.
  - 퇴직연령은 실제(effective)퇴직연령과 공식(official)퇴직연령으로 구분된다.
  - 평균실제퇴직연령은 각 연령에서의 발생하는 퇴직비율에 의해 가중치를 둔 개개인의 퇴직연령의 합으로 정의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퇴직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르며 연금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직연령의 국가간 비교는 간접적인 측정에 의한다.
  - 간접적인 측정은 회원국의 노동력조사에 의해 측정된으로써 무노동력으로 이동의 비교에 기초한다.
  - 퇴직으로 순이동은 근로 중도 아니고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특정연령 이상의 인구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간접 측정된다.
• 노동력조사의 적용 방법에 따라 퇴직연령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 만일 조사기간 중 노동인구로 있지 않으며 특정연령 이상의 사람은 퇴직으로 간주된다.
• 자료는 5년 주기로 관찰하는 5년 단위 연령층의 노동참여비율의 변화에 기초한다.
• 제시통계 : 대체적으로 실제퇴직연령은 공식퇴직연령 아하임, 여러 국가의 실제퇴직연령 감소가 안정화됨 등

▶ 주요의미

• 퇴직 관련 요인은 노동시장의 주기적 상태변화, 인구학적 요인, 직상조직, 경제구조의 변화, 문화적 고려, 건강상태, 배우자의 선택과 가족의 의무들

Retirement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cessation of work from a "main" job and receipt of an old-age pension.
The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ages at which individuals withdraw from the labour force, weighted by the proportion of all withdrawals occurring at the age.

포함한다.

- 노동시장의 호전과 연금제계의 개혁은 실제퇴직연령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수급자격의 공식(또는 표준)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다.

- OECD 국가 평균 실제퇴직연령은 공식퇴직연령보다 낮다.
- 예외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실제퇴직연령은 남녀 모두 공식퇴직연령을 5년 이상 초과한다.

청년실업
Youth inactivity

▶ 정의

• 동일 연령의 총인구의 백분율로서 15~19세와 20~24세의 두 연령층 중 특정 연도에서 교육, 훈련 또는 고용 상태가 아닌 청년으로 정의한다.

- 교육과정에 전일 또는 파트타임 교육과정은 포함되어 있으나 비정규와 아주 짧은 단기의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회원국의 노동력조사에 기초하였으며, 조사 4주 전의 자료이다.

• 제시통계 : 지난 20년 동안 취학 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10대가 감소했, 젊은이 중 취학 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등

▶ 주요의미

• 저학력이 노동시장에서 머지는 임향이 증가하고 있다.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과 훈련세계의 여러 가지 양상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 용이성에 영향을 준다.

The indicator presents the proportion of youths, seperately for those aged 15 to 19 and 20 to 24, who are not in education, training or employment in a given year, as a perv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ame age.

-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사람은 좋은 미래를 제공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며 인생 전반에 걸쳐 수입이 적고 실직, 빈곤, 그리고 사회적 낙오의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

• 고용 및 취학 또는 취업훈련 상태가 모두 아닐 가능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 많은 청년층의 직장 생활의 지연은 부모와 동거기간이 길어지고, 독립적인 가족 형성이 지체되어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 교육과 고용상태도 아닌 청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간 차이가 있다.

- 정책으로는 흔히 노동시장이 "청년 우호적(youth friendly)"인 방향으로 가는 단계, 교육과정의 다양화, 그리고 특정 위험(노숙, 약물남용, 범죄행위) 등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특별 중재를 포함한다.

형평성 관련

일반상황

상대빈곤
Relative poverty

▶ 정의

- 가구소득이 해당국의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개인을 빈곤으로 분류한다.
- 상대빈곤은 특정 국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선(빈곤율) 이하에 있는지와 빈곤자의 소득이 얼마나 빈곤선(빈곤격차) 이하로 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빈곤에 대해 합의된 측정방법은 없다.
  - 빈곤은 가구 가처분소득(개인이 지불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를 제외한 순소득) 개념에 기초한다.
  - "등가규모(equivalence scale)"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이다.
- 대부분 자료는 보편적 방법론과 정의가 적용된 국가별 미시자료(가장 보편적으로는 가구조사)에 기초한다.
- 개인 가구소득은 가구 크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하여야 한다.
- 혼합된 조사 및 행정자료, 소득 측정 기간의 차이, 결측치 및 극단치 처리의 방법, 그리고 현물급여, 서비스(보건의료), 간접세 영향의 배제 등에 따라 달

Individuals are classified as "poor" when their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half the median level prevailing in each country.
This is based on the concept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i.e. income net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individuals).

라질 수 있다.

- 세시통계 : 빈곤율과 빈곤격차의 심소가 일률적이지 않음, 젊은이와 노인은 빈곤의 위험에 가장 많이 폭로됨 등

▶ 주요의미

- 빈곤의 위험은 개인의 연령, 세금의 형태와 급여체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 세금과 이전(taxes and transfers)의 영향을 고려한 빈곤율은 아동과 노인에서 가장 높다.
- 사회의 빈곤성도를 이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충분한 소득기간과 가구의 자산, 다른 서비스나 자원의 섭근성을 고려해야한다.
- 상대적 소득기준 측면에서 최저 소득계층의 실소득이 중위보다 적게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빈곤이 증가하고 빈곤가구의 실소득이 중위 소득계층보다 적게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빈곤이 감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 가족구성원이 많은 경우는 작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겠지만, 소비의 규모경제를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Income inequality

▶ 정의

• 보건지표의 국내총생산과 소득불평등 참조.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소득불평등은 가구 가처분소득(가구가 지불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제외한 후 소득)의 분배로 측정한다.
  - 가구소득은 "등가규모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ty)" 0.5를 전제로 가구 크기를 고려하여 보정한 것이다.

• 제시통계 : OECD 국가간 소득불평등의 차이, 정부급여와 조세는 시장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킴 등

▶ 주요의미

• 가구 가처분소득의 분배는 시장소득(소득, 자영과 자본수입)의 분배와 정부가 세금과 이전(taxes and transfers)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경제활동인구 간에 시장소득의 분배는 상당히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

• 노인소득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OECD 국가의 연령구조 차이 때문에 세금과 이전의 역할과 시장소득의 역할은 생계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출 때 평가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Income inequality is assessed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i.e. income after deduction of direct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of each individual.
The summary measure of income distribution used is the Gini coefficient.

아동빈곤
Child poverty

▶ 정의

•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인 자로 정의되고, 가처분소득이 해당 국가의 중위 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빈곤으로 간주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모든 국가에서 아동은 부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하는 가구의 구성원으로 산정한다.
  - 가구소득은 소득, 이전 및 자산소득을 포함하며, 순직접세와 기구별로 지불하는 사회보장 기여분을 제하여 산정한다.
• 가구의 총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등가규모탄력성 0.5로 보정한다.
  - 아동빈곤의 측정은 다른 연령군보다 등가규모탄력성에 매우 민감하다.
• 제시통계 : 아동빈곤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낮음, 빈곤율은 편직부모를 가진 가족에게 매우 높음 등

▶ 주요의미

•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련 요인은 편부모 슬하와 부모의 직업 유무이다.
• 직업이 있는 유사니 가구는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 부모의 고용이 아동빈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 아동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어린 시절 빈곤의 경험은 그들의 인식와 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근로성인이 없는 유사니 가구의 빈곤율은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존재와 수준 또한 상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Children are defined as those aged less than 18, and they are counted as "poor" when they live in households where disposable income is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of a given country.

노인소득
Income of older people

▶ 정의

- 노인소득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한 65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이다.
  -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15세에서 64세로 정의한다.
  - 소득은 자영업 소득, 자산소득과 공공이전소득, 가구와 개인이 지불한 직접세(그리고 계속 고용상태인 경우, 사회보장 기여분)를 차감한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빈곤과 소득불균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가구소득조사와 기타 미시자료(micro datasets)에 기초한다.
- 가구소득은 가구의 크기에 대한 보정으로 등가화(equivalised)한다.
  -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중위소득(median income) 50% 기준에 따른다.
- 가구 가처분소득은 노인의 경제적 웰빙의 불완전한 측정치이며, 그들의 경제자원을 과소평가하고 빈곤위험을 과대추정하기 쉽다.
- 제시통계 : 노인상대소득의 수준과 변화의 큰 차이, OECD 국가의 3분의 1은 전체인구보다 노인에서 빈곤율이 더 낮음 등

▶ 주요의미

- 모든 국가에서 노인은 일과 관련한 비용이 적게 들고 자산보유가 더 많으며, 다른 연령층에 적용되지 않는 자원(예, 보건의료와 주거의 보조)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One important dimension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their disposable income relative to tha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Elderly persons are those aged 65 and over, while the population of working is here defined as those aged between 18 and 64 years of age. The income concept used includes earnings, income from self-employment, capital income and public trasfers, net direct taxes paid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Household income is "equivalised" by adjusting for household size. Relative poverty rates for the elderly are based on an income cut-off line set to 50% of the median income of the entire population.

- 노인의 상대소득은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 경제활동인구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대소득이 증가하며, 대부분 노인이 혼자 사는 국가와 비교하면 그들의 빈곤율은 낮다.
  - 특히 노인이 집을 많이 소유한 국가(예. 호주)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공공 및 민간 급여의 소득을 같이 고려할 경우 연금제도는 대부분 노인의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국가의 경우는 직장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예. 일본).
  - 노인의 상대소득 증가는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나타낸다.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spending

▶ 정의

- 사회적 지원은 공공 및 민간기관이 웰빙(well-be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금부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이러한 지원의 많은 부분은 사회지출의 형태를 띠며, 이것은 현금급여와 식섭 현물급여인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중앙, 주, 시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포함)가 관련 재정적 흐름을 조정할 때 공공으로 분류한다.
  -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사회보험재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여하여 지급되는 질병급여는 공공으로 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식섭 지불한 질병급여는 민간으로 구분한다.
- 사회지출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 및 질환자, 그리고 신업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사회적 급부를 규정하는 제도는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 또는 의무가입을 포함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일부 국가의 경우 과소 추산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지출에 있어서 측정상 문제가 있다.
- 제시통계 : 일반적으로 공공사회사출은 평균적으로 GDP 5분의 1에 근접함, 1993년 이후 공공사회지출이 적게 감소된 등

▶ 주요의미

- 국가간 비교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지원의 지표는 GDP 대비 "총"(이러한 귀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간접세의 공제이전 금액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세출의 합)공공사회지출이다.

Social expenditure is classified as public when the general government(i.e. cent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controls the relevant financial flows.

민간사회지출
Private social spending

▶ 정의

- 총민간사회지출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개인간 재분배적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제도가 해당된다.
  - 민간사회급여의 재분배적 속성으로 급부 규칙에 관한 국가법령(의무적 민간사회급부), 단체협약의 조항 또는 민간제도나 정부에 의한 고용 관련 복지정책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은 일반정부에 의해 조정될 수 없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여 정의한다.
  - 가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개인간 이전(예, 선물)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민간지출 규모는 총계념(즉, 이러한 흐름과 조세지출에 부과된 세금납부의 상계 전)에 기초하고 있다.
- 이러한 지출규모에 대한 적절 정보가 부재할 때에는 간접 추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 사용사 의무부담질병급여의 지출자료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와 임금정보에 기초한다.
- 민간지출 적용범위의 자료는 완전하지 못하다.
  - 민간건강급여의 경우, 현재의 추정은 정부에서 정한 개인의 본인 부담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속성상 문제는 공공지출보다 민간사회지출이 더 크다.
- 제시통계 :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총민간사회지출은 서로 상이짐, 민간사회지출와 구성 등

The social spending is defined as including all financing flows not controlled by general government. Excluded from these flows are direct transfers between individuals(e.g. gifts). Gross private social expenditure cocerns all programmes with a social purpose that contain an element of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 주요의미

• 자본화된 연금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성숙되어짐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민간사회급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회지출
Total social spending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회지출에 대한 세금체계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자료가 흔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자료와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구하는 추정치를 종종 필요로 한다.

• 정부의 민간사회지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정보는 총공공사회지출 자료보다 질이 낮다.

- 순사회지출은 간접세의 보정이 요구됨으로서 시장 가격의 GDP보다 요인비용(factor cost)의 GDP와 관련이 있다.

• 제시통계 : 총공공사회지출과 순공공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과 총사회지출 등

▶ 주요의미

• OECD 국가에서 사회적 목표의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포괄적인 총자원의 양적 산정은 공공 및 민간사회지출과 세금제도가 제공된 사원의 유효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총"(세금공제 이전)사회지출에 대한 세금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조수급자의 수령액에 대한 직접세와 그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를 통한 사회지출의 상부 "세금환수(clawback)"를 고려하여야 한다.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total amount of resources that each OECD country devotes to the pursuit of social goods has to take into account both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tax system affects the effective amount of support provided. To capture the effect of the tax system on gross(before tax) social expenditures, account has to be taken of the government "clawback" on social spending through the direct taxation of benefit-income and the indirect taxa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consumed by benefit recipients.

-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목적을 위해 세금수대에 지출하는 것보다 공공사회서출의 과세를 통하여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환수한다.

•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자원의 순(즉, 세금공제 후)사회지출은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원의 좋은 예시가 된다.

- 개인적 관점에서 순사회지출은 급여수급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제생산(economy's production)의 비율을 반영한다.

• 국가간 순사회지출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조세와 급여제도에 의한 재분배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경제에 주는 영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연금

노령연금대체율
Old-age pension replacement rate

▶ 정의

- 노령연금대체율은 20세 연령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민간부분의 정규직 한 명에 대한 기대연금규여이다.
  - 공공 및 민간연금제도의 상제부분을 포함하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는 중요한 임의에 의한 연금은 세외한다.
- 대체율은 성년퇴인 이전 소득으로 나누어진 연금수급액(pension entitlement)으로 정의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노령연금대체율은 소득지수, 연금연령, 그리고 사망률에 따라 달라진다.
- 노령연금대체율은 총소득범위로 산정되며, 그 범위는 평균소득의 0.3에서 2.5배이다.
  - 노령연금의 기대대체율(expected replacement rates)의 지표는 총(세금 공제 전)과 순(직업이 있을 때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과 퇴직 후의 연금을 고려함)으로 나타낸다.
  - 순대체율은 개인의 성년퇴직 이후의 생활수준을 취업시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The old-age pension replacement rate is a measure of how effectively a pension system provides income during retirement to place earnings which were the main source of income prior to retirement. The indicator here is the expected pension benefit for a full-career, single worker in the private sector entering the labour market at age 20. The replacement rates is defined as pension entirement divided by pre-retirement earnings. It is calculated over the full earnings range from 0.3 to 2.5 times average earnings. Indicators of expected replacement rates from old-age pensions are presented both on a gross(i.e. pre-tax) and net basis(i.e. taking account of th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uions paid on earnings when working and on pension when retired).

▶ 주요의미

- 노령연금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정년퇴직 전의 주 소득원을 대체하기 위해 퇴직기간 동안 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 목적은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규정된 모든 변화와 법률로 정해진 매개변수(parameters)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 저소득자에게 미치는 세금과 기여금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수준의 사람보다 세금과 기여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감소된다.
  - 저소득층의 순대체율은 고소득층의 순대체율보다 훨씬 퇴직 전 소득에 근접한다.

연금약정
Pension promise

▶ 정의

- 연금약정은 퇴직 시점에서 연금급여의 순현재가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연금약정은 노령연금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 개인에게 주어지는 연금수급액의 가치와 노령자에 대한 재원 이전의 가치를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첫째, 연금수급연령이 국가간 다르고, 때로는 성별로도 다르다.
  - 둘째, 기대여명 또한 국가마다,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다.
  -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대 퇴임기간이 바뀌며, 그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또한 바뀐다.
- 지표의 활용 : OECD 국가간 연금자산의 차이 등

Pension promise is defined as the net present value of pension benefits at the point of retirement. It depends on the replacement rate, but also on indexation, pension age and country-specific mortality rates by age. The calculations use the same models used to calculate old-age pension replacement rates.

▶ 주요의미

• 각국은 다른 연금지급을 조정하기 위한 각기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 어떤 국가는 물가에 따라, 어떤 국가는 평균소득에 따라, 또 어떤 국가는 이 둘의 혼합방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만약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연금의 소득지수는 물가와 연동했을 때와 비교해서 더욱 커지게 된다.
• 만약 연금급여가 짧은 기간만 지급된다면(즉, 연금수령 연령이 높아진다면), 국가는 더 높은 연금대체율을 약속할 수 있다.
  - 60세부터 지급되는 물가연동의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는 같은 금액의 연금보다 거의 20% 이상의 가치가 있다.
  - 퇴직시 기대여명이 짧으면 기대연금대체율이 더 높아 질 수 있다.

연금자산
Pension wealth

▶ 정의

- 연금자산은 미래에 수급하는 총연금액의 현재가치이다.
  - 연금지급수준, 연금수급연령, 기대여명, 연금의 소득, 그리고 물가 연동방법을 고려한다.
- 각국의 의무가입 연금제도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에 상당하는 연금지급흐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시금의 크기를 의미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 물가에 연동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한다.
- 연금수급연령과 함께 기대연금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국가의 사망률에 기초한다.
- 국가마다 다른 연금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퇴직시 연금수급권을 표준화된 수리기법을 이용하여 연금자산이라는 값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제시통계 : 추정 사망률에 의한 65세의 기대여명, 소득계층별 의무가입 연금제도의 총연금자산 등

▶ 주요의미

-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미래의 모든 연금을 고려한 지표이다.
  - 연금자산의 수준은 지급 연금의 수준뿐만 아니라 얼마동안 수급되느냐에도 달려있다.
  - 어떤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되는 년수는 퇴직연령과 해당 연령의 기대여명과 관계있다.

Pension wealth :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stream of pension payments - is the most comprehensive indicator of pension promises.

- 수급 중의 연금에 대한 연동방식(물가 또는 임금)도 인금자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주요의미

- 연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노인에 대한 특별 공제 및 감면 형태는 근로연령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소득 공제 및 감면을 초과하는 수준을 제공한다.
  - 수급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세 형태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에서 공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일부 또는 전액 면세된다.
  - 사회보장기여금은 보통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연금급여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또는 유족보험의 기여를 부과한다.
- 수급권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근로시기의 소득 대비 연금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수급권자는 대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는 누진적이지만, 대체율이 대개 100% 이하이므로 (적은)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평균세율이 근로시기의 높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항상 낮다.
  - 대부분의 소득세제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와 감면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영세율(zero-rate bands to the elderly)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권자를 우대함으로써 세금과 기여를 공제한 후의 순대체율은 총대체율보다 높게 된다.

Income taxes and, usuall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levied on pensioner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net incomes from pensions relative to earnings during working life. pensioners often do not pa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연금소득상한
Ceilings on pensionable earnings

▶ 주요의미

- 대부분 국가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대개 기여금 부과와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소득에 대해 한도를 설해두고 있다.
-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구조, 규모 및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 상한소득이 높거나 없으면, 고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높아서 임의 사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This ceiling on the earnings covered by the pension system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structure, size and cost of the earnings-related schemes. High ceilings or the absence of a ceiling means that high-income workers receive a high replacement rate and there is little need for take-up of voluntary private pension..

연금수급연령
Pension eligibility age

▶ 정의

- 표준퇴직연령을 말한다.
  - 대다수 국가는 남자의 경우 65세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가장 일반적인 수급연령인 65세를 기본가정으로 이용하여 계산한다.

▶ 정의 및 주요의미

- 여자의 수급연령이 몇몇 국가에서 여전히 낮지만,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남녀간 수급연령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벨기에, 핀란드, 영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미국의 경우는 67세가 표준수급연령인 반면, 프

랑스와 터키는 60세를 표준퇴직연령으로 하고 있다.

- OECD 국가의 2/3는 조기 퇴직시 연금을 지급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연금수급연령을 높여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더 짧게 하면, 퇴직 시 높은 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

The majority of OECD member countries have a standard retirement age of 65 for men.

지급연금연동
Indexation of pensions in payment

▶ 정의

• 지급연금연동은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급되는 연금의 인상(up-rating)정책을 말한다.

▶ 주요의미

• 보통 연금급여를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도 한다.

• 소수의 국가만이 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공식적인 연동규정을 두고 있다.

- 1970년대의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정부는 자동연동제도를 택하였다. 특히 사회부조 형태의 급여 또는 최저임금과 연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의적인 연동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현재 채택된 연동방식은 대개 물가연동이다.

Indexation refers to the policy for the up-rating of pensions in payment from the point of claim of the pension benefit onwards. Typically, pension benefits are adjusted in line with an index of consumer prices, although in some cases the adjustments also take account of changes in average earnings.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

▶ 정의

• 상대연금수준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average economy-wide earnings)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연금산정시 서로 다른 기준의 소득을 이용하는 여러 국가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연금수급권을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 증가로 재평가한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비율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OECD 소득비례연금제도들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으로 재평가한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을 연금산정시의 기준소득으로 적용한다.

▶ 주요의미

• 상대연금수준은 수급자의 연금액이 각국의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연금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 개인의 대체율이 아주 높을지라도 수급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
  - 평균적인 근로자의 경우 대체율과 상대연금수준은 동일하다.
• 상대연금수준은 약속한 연금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지표에 불과할 뿐이고, 종합적인 척도는 아니다.
  -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기대여명, 퇴직연령 및 연금급여의 연동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요소들은 연금급여가 얼마동안 지급되고 그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한다.

The relative pension level - pension entitlements as a share of average economy-wide earnings.

대체율
Replacement rate

▶ 정의

- 대체율은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종종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도 표시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근로자는 전 근로기간에 걸쳐 평균소득과 일정한 비율의 소득을 가진다는 것을 산정한다.
  - 이 경우 개인 소득이 가정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 궤적과 나란히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애평균 재 평가소득과 개인의 최종소득은 일치한다.

▶ 주요의미

- 고용에서 퇴직으로 옮겨가면서 연금제도가 이전의 개인적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고 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체율은 연금제도의 보험적 역할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 대체율은 약속한 연금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편적인 지표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척도는 아니다.
  -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기대여명, 퇴직연령 및 연금급여연동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연금급여가 얼마동안 지급되고 그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한다.

The replacement rate : pension entitlements as a share of individual lifetime average earnings.

순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 정의

• 순대체율은 근로자와 수급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 개인의 순소득과 순연금액을 대비한 것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총소득 기준으로 분류한 다양한 소득수준의 개인에 대하여 계산한다.

▶ 주요의미

•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저소득자(평균소득의 절반)의 순대체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 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보통 평균소득자보다 세금과 기여금을 더 적게 내기 때문이다.
• 평균소득수준에서 OECD 회원국의 순대체율이 평균적으로 총대체율보다 22% 더 크다.
  -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자에 비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보다 더 큰 이할을 함으로써 순대체율과 총대체율간 격차(22%)는 평균소득자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 세제는 퇴직소득제도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Net replacement rates : that is, individual net pensions relative to individual net earnings, taking account of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workers and pensioners. The calculations are again carried out for individuals at different levels of gross earnings.

가중평균기법과 소득분포
Weighted averages and the earnings distribution

▶ 정의

• 가중평균기법은 개인수준의 결과를 집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법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각 수준의 개인소득 분포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 저소득자가 많고 고소득자가 적을 경우, 고소득보다 저소득 지표의 계산 시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 이 계산에서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평균적인 소득분포를 이용한다.

▶ 주요의미

• 이 지표는 경제 전반의 평균 0.3~3배 사이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연금수급액을 대상으로 한다.

Each level of individual earnings is given a weighted based on its importance i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가중평균연금수준과 연금자산
Weighted average pension levels and pension wealth

▶ 정의

• 가중평균상대연금수준은 소득분포를 연금수급액 추계와 결합시킨 값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연금수급액의 가중평균의 산출은 소득분포 가중치를 이용하면서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0.3~3배에 이르는 범위의 개인소득으로 상대연금수준을 평균한다.

▶ 주요의미

•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의 규모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다.

The mesure of weighted average relative pension level combines the earnings distribution with the projections of pension entitlement. The relative pension level is averaged over individuals earning across the range from 0.3 to three times average economy-wide earnings using the earnings-distribution weights. The result is the weighted average of the pension entitlement expressed as a persentage of economy-wide average earnings. This provides a useful indicator of the pension promise made to today's workers.

개별제도의 세대간 자원이전기여도
Structure of the potential resources transfer to pensioners

▶ 정의

• 각 제도로부터 얻게 되는 가중평균 연금자산을 전체 가중평균 연금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These are calculated as the weighted average pension wealth from each source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확정급여제도
Defined-benefit scheme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확정급여제도는 가입기간 1년마다 일정한 지급률(a)이 보상된다. 이 지급률은 생애평균재평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급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DB = \sum_{i=1}^{R} w_i (1+a)^{R-i} a$$

여기서 w_i는 특정 년도의 개인소득, R은 퇴직년도, a는 퇴직 전 소득에 대한 재평가율이다.

-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상승률이다.

점수제도
Points system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점수제도는 소득을 연금점수당 비용(k)으로 나누어 연금점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연금급여는 퇴직 시 점수의 가치(v)에 달려있으며,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P = \sum_{i=1}^{R} \frac{w_i x_R}{k_i}$$

중요한 정책변수는 연금점수를 재평가하는 정책으로, 계수 x로 표시한다. 퇴직시 연금점수를 그 당시 가치의 함수로 쓰면, $v_R = v_i (1+x)^{R-i}$이 되며,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PP = \sum_{i=1}^{R} \frac{w_i x_i}{k_i} (1+x)^{R-i} a$$

명목계정
Notional accounts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매년 명목계정에 임금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기여금)이 유입된다. 명목계정의 원금은 매년 명목이자율 n만큼 증가한다. 퇴직시 직립된 명목원금을 명목연금율 A(또는 g-value)로 나누면 연금급여가 산출되는데, 연금산식은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NA = \sum_{t=0}^{R} \frac{W_t \cdot C}{A} (1+n)^{R-t}$$

수급요건
Qualifying conditions

▶ 정의

• 수급요건은 연금수급(또는 퇴직)연령 및 연금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이다.

Pension eligibility(or "retirement") age and years of contributions required to receive a pension.

급여산정
Benefit calculation

▶ 정의

• 급여산정은 개인소득세제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과에 있어 연금수급자 취급 방식이다.
  - 연금소득에 대한 면세를 포함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급여산정은 소득비례제도, 강제적 사적연금제도 및 자원조사에 의한 제도 등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규정에 의한다.

The rules for each schemes making up the pension system, such as earnings-related schemes, mandatory private plans and resource-tested schemes.

경제변수
Economic variables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실질소득상승률(real earnings growth) : 매년 2%로 한다.
- 개인소득(individual earnings) : 경제 전체의 평균과 같게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물가상승률(price inflation) : 매년 2.5%로 한다.
- 적립방식, 확정기여연금의 실질수익률(real rate of return on funded, defined-contribution pensions) : 매년 3.5%로 한다.
- 계리적 할인율(discount rate for actuarial calculations) : 매년 2%로 한다.
- 사망률(mortality rates) : 기본 모형은 유엔/세계은행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별 추세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 소득분포(earnings distribution) : OECD 국가의 평균소득 분포자료를 이용한다.

▶ 주요의미

- 실제로 받은 연금액은 서로 다른 경제성장률, 임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단일 가정은 경제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국가간 연금수준의 차이는 오직 연금제도의 형태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목표제도
Targeted schemes

▶ 정의

• 자원조사에 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득보장제도이다.

Separate resource-tested schemes for older people.

최저연금제도
Minimum pension schemes

▶ 정의

• 소득비례연금제도 내의 최저연금제도이다.

A minimum pension within an earnings related scheme.

기초연금제도
Basic pension schemes

▶ 정의

• 적용기간 또는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제도이다.

A Pension based only on number of years of coverage or residency.

소득비례연금제도
Earnings-related schemes

▶ 정의

• 전통적인 확정급여제도뿐만 아니라 명목계정 및 점수제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이다.

All public earnings-related programmes, including notional accounts and points schemes as well as traditional defined-benefit plans.

확정기여제도
Defined-contribution schemes

▶ 정의

• 최종 급여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달 부여하는 의무기여율이 정해져 있는 연금제도이다.

DC occupational plans (which cover the vast majority of employees) have contribution rates that vary between 9 and 17%.

기업연금제도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 정의

• 사용자나 산업별로 운영되는 제도(네덜란드), 전문직종별 제도(스웨덴), 또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강제제도(핀란드, 프랑스)이다.

Mandatory pensions, which can be provided by employers, industry-wide schemes (Netherlands), profession-based schemes(Sweden) or publicly(Finland, France).

건강 관련

㉮ 일반상황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 정의

• 보건지표의 기대여명 참조.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계산방법으로 평균수명을 계산한다.
  - 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국가의 평균수명 측정치가 수분의 1년 정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보고된 평균수명 추정치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제시통계 :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녀 평균수명의 현저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생존, 특히 1970년대 이후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 등

▶ 주요의미

• 기대여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가장 일반적이고 확장의 것으로 알려진 측정치이다.
  - 기대여명의 변화는 생활수준, 생활습관, 그리고 신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상호 종속 변수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 모든 국가의 평균수명은 크게 증가하였다.
  - 이러한 증가는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와 노인의 높은 생존율에 기인한 것이다.
  - 헝가리의 경우 남자의 평균수명은 1990년대 후반부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불변적이었는데, 불건강한 생활습관, 좋지 않은 식이요법, 과음, 그리고 흡연 등에 기인된 결과이다.

• 질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의 개선, 특히 뇌혈관질환의 개선된 의료처치는 기대여명 증가에 많은 부분 기여한다.

건강여명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

▶ 정의

• HALE은 "완전건강(full health)"과 동의어로서, 건강하게 살아온 년수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WHO는 건강여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건강년수를 심한 정도에 따라 불건강 년수에 가중을 두고, 기대여명으로부터 가중된 불건강년수를 기대여명에서 제한다.

• 현재 건강여명의 정확성, 신뢰성과 비교성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
  - 건강상태의 측정방법 차이에 의하여 국가간 비교시 제한이 있다.

• 제시통계 : OECD 국가의 3분의 2는 건강기대여명이 70세에 도달함, 불건강 상태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거의 2년 이상 더 생존 등

▶ 주요의미

• 건강여명에 기여하는 요인은 기대여명에 기여하는 요인과 같다.
  - 이것은 생활수준, 더 나은 생활습관, 근로조건, 공중보건중재, 그리고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 기대여명의 증가가 잉여년수를 건강하게 보내게 하는지 또는 질환상태의 지연과 부양을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

• 65세 이상 인구의 장애 유병률 감소가 의료요구의 지연을 단순히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노인의 증가 건강과 장기요양의 준비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다.

HALE aims to summarise the number of years to be lived in what might be termed the equivalent of "full health". To calculate HAL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eights the years of ill-health according to severity and subtracts them from overall life expectancy to give the equivalent years of healthy life.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 정의

• 보건지표의 영아사망 참조.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영아사망률의 국가간 차이의 일부는 조산아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국가간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출생아로서 또는 아닌 것으로 보고됨).
  - 여러 국가에서 조산아(상대적으로 낮은 생존 가망성을 가진)는 출생아로 등록된다.
• 제시통계 : 영아사망률의 큰 감소, 터키와 멕시코의 여전히 높은 영아사망률, 나머지 국가는 평균 1000명당 5명임 등

▶ 주요의미

• 영아사망률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간 비교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 특히,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 신생아 사망(출생 4주 안에 발생함)은 영아사망의 3분의 2에 달한다.
  - 대다수 선진 국가의 신생아사망은 선천이상 또는 조산의 결과이다. 높은 연령에서 첫 출산과 다태아 임신(보조생식술의 처치와 연관됨)의 증가 때문에 조산의 수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높은 영아사망률이 상대빈곤에 관계되는지 또는 극도로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원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제한된 접근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 영아사망률은 많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낮은 영아사망률을 갖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득의 분배가 동등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낮은 영아사망율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 영아사망률의 국가간 차이는 의사수와 병상수 같은 특정 보건의료 자원의 이용성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료비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 정의

- 보건지표의 의료비와 재정 참조.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포괄의료비(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는 최근 개발된 보건계정체계(SHA:social health accounts)에 따라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 1990년과 최근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국가의 비용추정은 국민계정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된 보건계정체계에 기초한다.
  - 1인당 의료비의 국가간 비교는 국가화폐를 일반화폐로의 변환을 필요로 한다(구매력평가 변환율 USD).
- 제시통계 : 1990년 이후 공공 및 민간의료비의 증가, 의료비와 의료성과의 OECD 국가간 차이, 1990년대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의 증가 등

▶ 주요의미

- 국민의료비는 심병치료와 조기사망률의 감소, 장호진료를 요구하는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 보건프로그램, 그리고 건강보험과 다른 기타의 재원으로서 제공되고 관리된다.
- 의료비의 증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 첫째, 의료비는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치료와 예방의 의료역량의 진전은 의료비 증가의 또 다른 주요요인이다.
  - 셋째, 노령화의 효과보다 인생 후반(보다 높은 연령에서 집중)에 어느 정도 보다 높은 의료비를 반영하는지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인구의 노령화는 역시 의료적 의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의료시스템과 경제의 상호작용은 시출 성향의 재정적 지속성을 고려할 때

Total expenditure on health is the amount spent on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 plus capital investment in health care infrastructure, by both public and private sources.

중요하다.

- 이러한 관세는 보건과 경제의 정책결정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 국민의료비의 국가간 차이는 의료비에 의한 의료성과 차이, 보건의료전달체계, 생활습관,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형태 등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호
Long-term care

▶ 정의

- 장기요양보호는 일상생활활동(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영위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 활동에는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침대 또는 의자 사용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포함된다.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복지법 하에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두 형태로 분류된다.
  - 시설보호는 다시 일반시설보호, 특별시설보호로 분류된다. 가정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에는 가사지원서비스, 주간요양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 요양보호에는 상처치료, 통증관리, 약물치료, 건강검진, 예방, 재활, 능증완화 등 기초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 주요의미

- 장기요양보호에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옷 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연성과 자율결정(self determination)이 중요하다.
  - 개인 예산을 통해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양보호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존적으로 느낀다.

Long-term care is a range of services needed for persons who are dependent on help with basic ADL. This central personal care component is frequently provided in combination with help with basic medical services such as help with wound dressing, pain management, medication, health monitoring, prevention, rehabilitation or services of palliative care.

-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어떻게 제공하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수요는 연령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대부분은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된다. 주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적인 질환자에게 필요하다.
  - 재원의 제공방법과 충당은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만성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령별 차별 없이 이용자의 요양보호 수요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향후 노인세대의 건강과 장애 정도이다.
- 건강수명은 대체로 연장된 기대수명과 비례한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호 정책과 계획을 위해 중요하다.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가족, 친구, 친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활동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 정의

- 일상생활활동은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침대 또는 의자 사용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배변 조절하기 등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자기보호 활동을 말한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 are self-care activities that a person must perform every day, such as bathing, dressing, eating, getting in and out of bed or chair, moving around, and using the toilet, and controlling bladder and bowel.

수당
Allowances

▶ 정의

• 수당이나 현금수당, 현금급여는 소득세, 납세 및 소득세 면제 대상인 모든 급여로 정의한다.

Allowances, cash allowances and cash benefits are all payments that may be either liable for income taxation or exempt from income taxation.

요양보호
Care

▶ 정의

• 주로 장기요양보호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as synonym for long-term care.

소비자선택형
Consumer direction

▶ 정의

• 공적 프로그램에서 요양보호 대상이나 그 가족들이 요양보호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미국 소비자선택형 장기요양보호서비스협회(The US National Institute on Consumer Directed Long term Care)에서는 소비자선택형이란 "가정 및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전달 방식이자 철학으로서 정보를 가진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 서비스에 대해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The term consumer direction refers to arrangements whereby public programmes enable persons needing care or their families to purchase their own care, sometimes including being an employer of a care assistant.

장애노인 또는 피부양
Disabled, or dependent older persons

▶ 정의

•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Older persons whose overall level of functioning is substantially reduced, such that they are likely to require help from a third party, or substantial help from aids and adaptations, in order to fulfil the normal activities of daily life.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Formal long-term care services

▶ 정의

• 공적/사적 조직의 종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로서 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 및 가정에서 전문 간호사나 비전문 요양보호 도우미에 의해 제공되는 요양보호를 말한다.

Long-term care services supplied by the employees of any organisation, in either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including care provided in institutions like nursing homes, as well as care provided to persons living at home by either professionally trained care assistants, such as nurses, or untrained care assistants.

재가보호
Home care

▶ 정의

• 가정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말한다.
  - 서비스에는 주간보호 및 보호자휴식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가정과 간호 은 기주보호시설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보호가 포함되는데, 통계시스템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주요의미

- 재가노인보호가 지속적이어야 하는 경우 동거 가족이나 기타 비공식 보호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재가보호서비스는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요양시설(nursing home)이나 사회시설(social home)에 입소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지할 목적으로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일부 국가(한국이나 멕시코, 스페인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적인 재가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가정봉사(home help), 주간요양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 가정봉사는 가사지원(domestic support) 및 개인요양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
  - 주간요양보호센터에서는 일상생활활동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식사전달(meals-on-wheels), 목욕, 오락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노인은 한 번에 45일 동안 단기보호소에 머물 수 있으며 1년에 최장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 시설보호와 마찬가지로, 재가보호에 대한 공적 보상(public coverage)의 경우 소득조사를 받는다.
  - 사회부조하에서 대상자만이 재가보호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최저 소득이 있는 노인은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며, 중상위층의 노인들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Refers to long-term care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to patients at home. This includes day-care and respite services and the like. Includes long-term care received in home-like settings, such as assisted living facilities, although statistical systems are in many cases not able to indentify these.

비공식보호
Informal care

▶ 정의

• 비공식보호는 주로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비공식요양보호자 - 배우자 파트너,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 의해 가정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를 말한다.

▶ 주요의미

• 비공식보호자에 대한 급여의 경제적인 손실은 노동시장 결속력(labor market attachment)에 따라 다르다.
  - 취업자의 경우, 휴직세도 등을 통해 비공식보호에 대해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하는 고용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 급여는 가족들에게 비공식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요양보호는 어느 정도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보다 비싼 요양보호를 대체하여 공공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현재 모든 OECD 국가에서 비공식보호가 전체 장기요양보호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 비공식보호가 노인 요양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다.
• 비공식보호는 부모 부양, 노인 부부의 해체, 그리고 주로 45세 이상의 여성들이 맡고 있는 비공식보호의 노인 취업 참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비공식보호의 대부분은 여성에 의해 제공된다.
  -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비공식보호 제공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부가적인 요양보호자이기 보다 주된 요양보호자이다.
  - 신체간병 서비스가 까다로워질수록, 여성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남성 보호자들은 신체간병보다는 가사를 돕는 경우가 많다.
• 비용부담이 큰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공식보호자들을 동원하고 수고를 인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비공식보호는 직장여부나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비공식 보호자의 훈련, 보호자휴식서비스,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비공식 보호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Informal care is the care provided by informal care-givers (also called informal carers) such as spouses / partners,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and other relatives, friends, neighbours and others, usually but not necessarily with an already existing socia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to whom they provide care. Informal care is usually provided in the home and is typically unpaid.

시설보호
Institutional care

▶ 정의

- 시설보호는 시설에서 요양보호 수혜자에게 기숙지를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장기적인 요양보호(보호사 휴식서비스 등의 단기시설보호는 시설보호와 다름)를 말한다.
- 시설보호에서는 일반시설보호와 특별시설보호가 제공된다.
  - 일반시설은 만성적이 아닌 경미한 질병을 가진 장애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 특별노인시설은 중풍이나 치매 등의 심각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에 대해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의 정도에 대한 균일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인 병원은 급성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의미

- 시설보호는 65세 이상에게만 제공된다.
  -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요양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를 받는 노인들만이 시설에서 무료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부조 대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들은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에

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수입이 높은 노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Long-term c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al which at the same time serves as residence of the care recipient.
Note : Institutional car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short-term care received in institutions such as respite care.

장기요양보호시설
Long-term care institutiuons

▶ 정의

• 장기요양보호시설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와 거주가 함께 제공되는 집단거주시설이다.
  - 입소자가 요양보호비용과 거주비용을 분리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places of collective living where care and accommodation is provided as a package by a public agency, non-profit or private company. Residents may or may not be charged separately for care services and accommodation.

노인
Older persons

▶ 정의

• 65세 이상의 사람이다.

All those aged 65 or over.

가정
Private home

▶ 정의

•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개인 거주지를 말한다.

Personal residence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people with care needs.

요양시설/ 요양시설서비스
Nursing home / Nursing home care

▶ 정의

•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간호와 개인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로서 장기요양보호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Used in this study as synonym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 providing nursing and personal care to persons with ADL restrictions.

보호자휴식서비스
Respite care

▶ 정의

• 보호자휴식서비스는 보호자가 일상적인 요양보호 행위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가족 보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당일 휴식을 제공하는 주간보호(day care)와 단기간의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특히 치매노인의 비공식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두 가지

제도는 보다 집중적인 가족 보호자휴식서비스와 단체생활시설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제시통계 : 자택과 시설에서 공식요양을 받는 노인비율의 국가간 차이의 증가 한. 많은 국가에서 홀로 사는 노인 비중이 증가함 등

▶ 주요의미

• 휴가나 보호자휴식서비스는 비공식 요양보호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지불자격 및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요양보호제도의 문제가 따른다.

- 호주의 경우 요양보호자에게 연간 최고 63일까지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요양보호자 수당이나 요양보호사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 보호자휴식서비스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시행되는 급여 패키지(benefit package)의 일부이며, 최근 독일에서는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Respite care is a short-term care arrangement with the primary purpose of giving the carer a short term break from their usual care commitments.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 정의

• 노년부양비는 보통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64세의 인구수를 말한다.

▶ 주요의미

• 노인요양보호 제공에 대한 사회의 잠재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지표이다.

• 고령화는 앞으로 수십 년 간 노년부양비가 상당히 악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 이 지표는 취업 연령층이 재원을 공급하고 노인층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회보호제도(연금과 의료비 등)의 추세를 살피보기 위한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의 잠재력을 검토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분확실하다.

One broad indicator that is used to show the trend in potential for societies to provide care for older people is the "old-age dependency ratio". This is normally expressed as the number of people aged 20-64 as a proportion of those aged 65 and over.

사회통합 관련

㉮ 사회통합 관련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 정의

• 주관적 웰빙은 가정생활, 일, 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같은 넓은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지표는 2개의 표준 질문에 대한 설문 응답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만족하는냐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이다.

•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기초한다.

- 10점 척도로 생의 만족에 대한 응답자의 7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응답자의 비율이다.
- 행복감은 4개 부류("very happy", "quite happy", "not very happy", "not at all happy")에 따라 점수화된다. 지표는 비교적 "행복" 또는 "매우 행복"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로 나타낸다.
- 세계가치조사는 세계인구의 85%를 포함하는 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 비록 각국에서 사용되는 설문지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정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are a useful complement to objective measures of living standards in comparing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These data provide a measure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an individual's health, education, income, personal fulfilment and social conditions. The indicators shown here are based on survey responses to two standard questions : first, how satisfied are respondents with their own life as a whole; and second, how happy do they feel.

확한 용어는 각국 특성의 반영으로 때때로 조성이 요구되는 질문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 대부분 OECD 국가의 표본수는 1,000개 정도이다.

• 제시통계 :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은 높은 만족감을 일으키며 국가 내에서 낮은 차이를 보임 등

▶ 주요의미

•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국가간 생활의 질 비교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객관적 측정에 유용한 보완물이다.

• 1인당 소득의 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응답의 다양성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는 소득의 불평등이 더 낮은 경향과 역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 정의

• 사회적 고립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의 부족을 의미한다.

- 사회적 접촉은 다양한 환경(근무 장소, 사회 활동, 그리고 가정 내에서) 하에서 발생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드물게 또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을 측정한다.

• 자료의 대부분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에 기초한다.

Social isolation is characterised by the lack of contact with other people in normal daily living. Social contact occurs in variety of settings-in the workplace, in social activities and families-and can be assessed through data measuring the frequency of contacts reported by individuals.

• 다른 사람과 접촉한 빈도를 묻는 질문은 보통 가족, 친구, 직장동료, 교회, 회교사원, 유대교당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스포츠/문화행사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사회적으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것이다.
  - 이에 대한 응답은 1) 주 1회 2) 한달에 1-2회 3) 드물게 그리고 4) 전혀 아님으로 분류한다.
• 가족구성원과 접촉에 관한 자료는 제한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 특히 홀로 사는 사람들이 활동적인 직업인이 아니거나 아이가 없다면 사회적 고립의 특별한 위험에 노출된다.
  - 회원국의 가구원 수입조사를 이용함으로써 홀로 사는 성인과 자녀가 없는 성인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 제시통계 : 친구, 동료, 사회집단에서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드물거나 보내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 여러 상황에서 타인과 접촉빈도 등

▶ 주요의미

• 사회적 고립은 가정파탄, 실직,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을 수반하며 사회적 고통의 징후이고 원인이다.
  - 도덕심에 영향을 주는 배타적 감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기여 구성원으로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뿐 아니라 일, 가족, 친구에 대한 개인적 일망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특히 집안에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사람에게 높다.
  - 그렇다고 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 빈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참여
Group membership

▶ 정의

- 단체참여는 공식 단체와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참여 여부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단체구성원의 밀도에 대한 지표는 응답자수를 가진 단체의 평균수로 정의한다. 최소한 한 단체에서 무급 일을 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 이러한 조사에서 포함된 단체는 다양한 조직과 지원을 포함하는데, 이 단체는 1) 종교 관련 단체 2) 스포츠와 문화협의 단체 3) 노동 단체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향의 단체 4) 특별한 목적이나 대의 이유에 대한 운동단체 등 4개 단체로 분류한다.
-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에 기초한다.
- 최근 대부분 조사는 응답자가 특별한 형태의 단체에 속하는 지 그리고 "활동적(active)" 또는 "비활동적(inactive)" 구성원으로 생각되는지 조사한다.
  -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무급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역시 조사한다.
- 공식단체에서도 참여가 활발한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 해당 단체의 개인의 활동성 평가를 위해 개인이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정도가 제시된다.
- 제시통계 : 단체활동의 국가간 차이, 단체참여는 형태에 따라 다양함 등

▶ 주요의미

- 공식 및 비공식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원이다.

The extent to which people participate in formal and informal groups in society is an important dismension of social cohesion. While the importance of informal networks is more difficult to quantify, the indicators focus on membership of formal groups and associations. Information is also presented on the extent of volunteer work that individuals perform in each of them.

- 한 단체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에서는 다른 단체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다.
  - 전통적으로, 공공생활 속에서 시민사회 참여도는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높다.
-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평균단체참여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단체참여 활동의 범위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특히 구성원의 유형에 의하여 크게 결정된다.

10대 출산
Teenage birth

▶ 정의

- 10대 출산은 모성연령 15~19세 1,000명당 출생건수(사산아 및 사망건수 제외)로 정의한다(15~19세 연령별출산율).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유럽협의회와 미국센서스국 인구과 국제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회원국의 등록된 인구에 기초한다.
- 제시통계 : 10대 출산의 전반적 감소, 10대 출산율의 국가간 큰 차이 등

▶ 주요의미

- 대체적으로 10대의 출산은 어머니인 어린이, 그리고 사회 전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종종 정책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 학교중퇴, 급여가 낮은 직업, 그리고 복지수급자로서 연결되는 성향이 있으며 출산아는 지체장 같은 보건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교생활

Teenage births rates are here defined as the number of (live) births to mothers aged 15 to 19, expressed per 1,000 teenagers(i.e. the 15 to 19 age specific fertility rate). The data are based on population registers of member countries, as collected by Council of Europe and International Data Base at the US Census Bureau, Population Division

에서 더 성공적이지 못하고 무관심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10대 출산의 증가 원인으로 주로 복지가 거론되어 왔으나 빈곤의 경험, 학교중퇴, 교육실패는 역시 10대 출산의 주요 정책 결정요인이다.

• 10대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더 가난하고 박탈된 그룹에서 더 높으며, 산전치료를 받으려는 첫은 드물고, 임신기간 동안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

- 대부분 국가에서 계획된 10대 임신은 거의 드물고 주로 피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 나타난다.

• 젊은 여성이 출산시기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 어머니가 될 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에게 좋은 가정환경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중요한 정책중재이다.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Drug use and related deaths

▶ 정의

• 대마(cannabis), 엠페타민(amphetamines), 아편(opiates), 엑스타시(ecstasy), 그리고 코카인(cocaine) 등과 같은 약물이용 관련 사망이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약물 관련 사망정보는 100만 명당 약물 관련 사망건수로 나타낸다.

- EU국가에서 약물 관련 사망통계는 일반적으로 약물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는 사망을 말한다(급성중독, 약물남용, 중독 또는 약물이 원인이 된 사망을 말함). 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사용 후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그 보다 더 긴 사례를 이용하고 있다.

Drug-related deaths are presented on the number of drug-related deaths per 1 million persons. In the EU countries, statistics on drug-related deaths generally refer to deaths occuring shortly after drug use(because of acute intoxication, overdose, poisoning or drug-induced deaths), while longer time-period can be used in other countries.

- 15~64세 연령군의 백분율로 나타나는데, 조사에 앞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불법 약물을 남용하였다고 보고한 사람의 숫자를 참조하여 이용한다.
- 자료는 신원의 비밀이 보장되는 조사이나 상당한 응답편의가 있을 수 있으며 약물사용의 정의, 조사의 빈도와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국가간 직접비교는 보고체계와 정의의 다양성 때문에 어렵다.
- 제시통계 : 약물소비의 국가간 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약물관련 사망의 안정화 등

▶ 주요의미

- 약물남용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징후이다.
  -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탈출하거나 피하려는 노력이 약물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적절한 취업기회, 가족관계 유지, 개인목표의 실현을 해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약물은 역시 범죄와 관련이 있다.
  - 많은 경우 보통 노숙을 포함한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한 "문제있는 이용자(problem users)"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관련되어 있다.
- 약물 관련 사망의 위험은 약물과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하다.
- 약물 관련 사망의 안정화는 이용 패턴의 변화(주사의 감소 같은) 또는 정책 개재(아편대체 프로그램의 확산)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살
Suicides

▶ 정의

-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자료는 10만 명당 "사망원인"의 공식 등록에 기초한다.
- 많은 국가에서 자살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유족 및 친구는 사망자가 자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고 할 수 있다.
- 자살율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 행정기록이기 때문에 국가간 자료의 비교성이 필연적으로 감소된다.
- 제시통계 : 지난 20년간 감소하는 자살율, OECD 국가간 자살율의 차이 등

▶ 주요의미

- 자살은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사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 비록 자살의 90%가 정신장애, 특히 우울증 또는 약물남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애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을 한 모든 사람이 "정신병(mentally ill)"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자살한 소수만이 정신병학 관찰 또는 치료 하에 있다.
- 약물중독, 실업의 지속, 사회적 고립은 자살사의 특징이지만 근본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자살은 여러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 가족 및 개인의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알코올, 약물이용, 실업 등 위기의 시간에 더 많이 나타난다.
- 자살의 시도는 자살이 실제 성공하는 것보다 좀더 흔히 볼 수 있다.
  - 예방은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하며, 청소년기의 건강, 교육, 사회화 과정을 폭 넓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Data on suicides are based on official registers of "causes of death", expressed per 100,000 individuals. As administrative records are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on suicides rates, this inevitably reduces data comparability across countries.

㉡ 기타 관련지표

가구
Household

▶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말한다(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일반가구는 한 사람이 혼자서 숙식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거나 두 사람 이상이 기숙,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한다.
  - 집단가구는 사회적 공공 복적 및 일반 목적의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급식을 받고, 그들을 소속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관리되는 집우를 말한다(통계청, 가계조사).

가구원
Household number

▶ 정의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가구 구성원 중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도 있고 비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통계청, 가계조사).

경제성장률
Economic growth rate

▶ 정의

•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한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물가, 실업률, 국세수지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은행, 국민계정).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경제성장률(%) = { (금분기실질GDP − 전분기GDP) / 전분기실질GDP } × 100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정의

•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국가마다 해당연령은 상이함)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 고용구조).

• 취업자 수

- 대부분 국가의 경우 'OECD Nation Accounts'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사업체로부터 자료가 수집된다. 그러므로 2개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각 사업체에서 한번씩 2번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근무할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OECD Labor Statistics'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가구통계조사에 의한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조사대상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말한다.

• 시한부 계약의 피고용자 수(fixed term cotracts)

- 시한부란 피고용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 국가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 시간제 근무 피고용자 수(part-time employment : thousand persons)

- 시간제 근무에 관한 정의는 OECD 국가마다 다르다.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기준으로 구분된다.
  1) 종사상태에 대한 근무자 자신의 자가규정에 의한 분류
  2) 사회 통념상의 근무시간(주 30시간 또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평상적으로 통념상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을 시간제 피고용자로 분류하는 경우
  3) 조사대상 주간의 실제 근로시간(actual hours worked)이 통념상의 근로시간(30시간 또는 35시간)보다 적은 사람을 시간제 피고용자로 분류하는 경우

• 실업자 수

- 정해진 연령 이상의 사람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1) 현재로 취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2)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3)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와 자영업의 경우를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 정의

• 만 15세 이상의 인구(국가마다 해당 연령은 상이함)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취업과 실업에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노동참가율이라고도 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 주요의미

• 대체로 25세에서 54세까지의 1차적 연령층의 참가율이 높으며, 저 연령층과

고 연령층의 경우가 낮은 것이 보통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월등히 높다.

-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인적 차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과잉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취업기회의 유무로 충분히 설명된다.
  - 소득수준이 높고 취업기회가 풍부하여 노동참가가 개별적인 신호에 의하여 참가행위를 설명하기도 한다.

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index

▶ 정의

- 소비자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구매력지수 =(1 / 소비자물가지수) × 100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 정의

- 국내총생산 = 국내총지출 + 재화와 용역의 수출 - 재화와 용역의 수입 + 통계적 차이
  - 국내총지출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자본형성
-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생산한 것을 불문하고 포함하되 외국에 진출하여 생산한 것은 제외한다.
- GDP – GNI = 해외순수취요소소득(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급요소소득)

국내총지출
Total domestic expenditure

▶ 정의

• 국내총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재고의 증가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개념적으로 보건지출이 분자가 되는 비의 경우에 분모로는 국민총생산(GNP)보다는 국내총지출이 보다 합리적이다.
  - 그 이유는 지출에서 생산을 뺀 것과 세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순수출은 보건지출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NI)

▶ 정의

•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을 말하며,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한국은행, 국민계정).
  -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추가 투입된 생산요소의 내역이나 각 산업의 생산성을 알아보는데 이용되고 있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국민소득(NI) = 국민순소득(NNI) / 순생산 및 수입세

국민가처분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 정의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한다(한국은행, 국민계정).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당해년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하는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한 것이다.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 정의

• GNI는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의 합계로 나타낸다(한국은행, 국민계정).
  - 해외에서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은 포함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1인당 GNI = 당해년가격 GNI / 연앙인구(거주자 개념)

▶ 주요의미

• 명목 국민총생산(GNP)은 명목 국민총소득(GN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동안 사용되었던 실질 GNP는 생산지표와 소득지표가 혼합된 지표로써 성격이 불분명하여 소득지표인 실질 GNI로 변경하였다.

• 1인당 GNI는 당해년가격 GNI를 인구로 나눈 것으로서 미 달러로 표시하여 국가간 국민의 생활수준 비교에 이용된다.
  - 당해년가격(current prices)은 당해 년도의 시장가격으로 명목가격이다.
  - 기준년가격(constant prices)은 특정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실질가격이다.

사망
Death

▶ 정의

• 출생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선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생 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상태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사망력
Mortality

▶ 정의

• 사망은 전 연령층에 발생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전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망력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망수준과 연령별 사망분포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망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있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사망률
Death rate

▶ 정의

• 일정기간의 사망수를 인구수와 대비시켜 얻은 비율로서 보통사망률,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임산부사망률, 신생아사망률, 1-4세 사망률, 사인별사망률(한국인구학회, 인구용어해설집).

사망원인별 사망률
Cause-specific death rate

▶ 정의

• 특정 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 가

를 표시한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자수/연앙인구)×100,000

생산가능인구
Productive population

▶ 정의

•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인구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의미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생산가능인구구성비 = 생산가능인구 / 총인구×100

실업자
Unemployed person

▶ 정의

•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 고용구조).

- 실업률 산정에 있어 OECD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기간(job search period)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구직활동기간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에도 ILO 권고안을 그대로 채택 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기간을 4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주간(1개월) 기준 실업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 조사대상기간(ILO기준 : 1주, OECD 기준 : 4주) 중 수입 있는 일에 선여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 과거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시불황,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연령별 사망률
Age-specific mortality rate

▶ 정의

• 특정 년도의 사망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남녀의 연령별 사망률 모형이 서로 상이하므로 보통의 경우 남·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특정 연령계층에서의 연간 총사망사수 / 해당 연령계층의 연앙인구) × 1,000

▶ 주요의미

• 인구의 연령구조별 변화추연을 파악하고자 연령별로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령별 이혼율
Age-specific divorce rate

▶ 정의

•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이혼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 이혼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인구 또는 여자 인구 기준으로 계산된다.
- (연령별 이혼건수 /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 × 1,000

연령별 출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 정의

-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 년도의 출생아 수를 당해연령별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 당해 연령별 여자인구) × 1,000

▶ 주요의미

- 한 사회에서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가를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로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실천율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연령별 혼인율
Age-specific marriage rate

▶ 정의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혼인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령별 혼인건수 /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 × 1,000

연앙인구
Mid-year population

▶ 정의

- 해당연도의 7월 1일자 인구로서 그 연도를 대표하는 인구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이혼
Divorce

▶ 정의

-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한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 및 재판이혼(조정, 심판 또는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진다.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및 친족 간에 서로 원만히 이혼조건을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 재판에 의한 이혼 :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의해 이혼조건 및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

이환
Morbidity

▶ 정의

• 질병(disease)과 질환(illness)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질병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 발견되지만 질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환율
Morbidity rate

▶ 정의

• 일정한 기간(2주간)동안 조사대상자(0세 이상) 중에서 신규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심신장애자, 만성질환자)을 포함하여 아팠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이환율={기간내(2주간) 유병자수/조사대상인구(0세 이상)}×100

자본이전
Capital transfer

▶ 정의

• 자본이전은 경상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거래이다(한국은행, 국민계정).
  - 경상이전과는 달리 거래 당사자의 자산 처분 또는 취득을 수반하게 된다.
  - 일반정부가 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조성금, 재해보상금 등이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일반정부가 다른 제도부문으로부터 수취하는 자본적 부과금도 있다.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s

▶ 정의

•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년도의 연간사망자수를 해당 년도의 연앙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조사망률=(연간 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

조출생률
Crude birth rates

▶ 정의

•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이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조출생률(CBR)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총 출생아수 / 연앙인구 × 1,000
  - 분자의 출생아수에서 사산과 유산은 제외된다.

최저생계비
Minimum living cost

▶ 정의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의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출산력
Fertility

▶ 정의

• 개인단위나 부부단위 또는 인구단위로 정상출생아의 생산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인구학적 용어이다(한국인구학회, 인구용어해설집).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출생률 또는 출산율에 의해서 측정된다.

출생
Live birth

▶ 정의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 후 생명의 징기(호흡, 심장·세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 주요의미

• 한 사회에서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실천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취업
Employed

▶ 정의

•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atypical, contingent, non-standard)는 정규(regular, typical, standard) 근로와의 대비를 통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의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 고용구조).

- 즉 정규 고용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근로형태를 '비정규 근로'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 정규 고용이란 전일제 고용, 근무 장소와 시간의 고정성 내지 안정성,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에 의한 '무기한 고용' 사용자의 단일성을 시창하며, 이중 하나 또는 복수의 요소에 수정을 가한 것이 바로 '비정규고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 비정규 고용에는 시간제(part-time) 근로자, 임시근로(temporary), 파견근로, 일용 근로, 계절 근로, 대기 근로, 하청, 도급, 재택 근로, 견습생 등이 포함된다.

• 정규직의 개념과 대비해서 보면, 임시직이란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용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파견 근로는 근로관계와 사용관계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편의적으로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이상의 분류 기준 외에도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 복지혜택 등 근로 조건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분류하기도 한다.

- 통계청은 주로 고용계약 기간에 의해서 임금근로자를 구분하는데, 고용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임시직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취업률은 생산가능인구대비 취업자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취업률(1-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고용탄력성 = 연평균 취업자증가율 / 연평균 불변 GDP 증가율

취업자
Employed person

▶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한국산업인력

공단, 한국의 고용구조).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이다.
-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기 위한 주당 근무시간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 직업 또는 사업체는 가졌으나 조사 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병, 임가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 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다.

평균임신연령
Mean age at childbearing

▶ 정의

• 연령별 출산율로부터 산출해낸 것으로 여성이 정상출생아를 출산한 연령의 평균을 말한다(한국인구학회, 인구용어해설집).

▶ 산출방법 및 제시통계

• 여자인구집단이 5세 간격의 연령집단으로 구분되어 연령별 출산율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신연령을 구하려면 각 연령집단의 중간연령(mid-point)에 그 연령집단의 연령별 출산율을 곱한 후 그 합계를 내고, 그것을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다.

혼인
Marriage

▶ 정의

• 부와 처로 구성된 법적 관계이다.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주의의 경우, 직권에 의해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진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찾아보기

국문

가구 ····· 153
가구원 ····· 153
가정 ····· 139
가중평균기법과 소득분포 ····· 119
가중평균연금수준과 연금자산 ··· 119
간호사 수 ····· 31
개별제도의 세대간 자원이전기여도 ···· 120
건강여명 ····· 16, 127
결혼과 이혼 ····· 84
경제변수 ····· 123
경제성장률 ····· 154
경제활동인구 ····· 154
경제활동참가율 ····· 155
고용 ····· 86
공공부담률 ····· 30
공공사회지출 ····· 105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 134
과체중과 비만 ····· 69
교육수준 ····· 95
구매력지수 ····· 156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 53
국내총생산 ····· 156
국내총생산과 소득불평등 ····· 74
국내총지출 ····· 157
국민가처분소득 ····· 158
국민소득 ····· 157
국민의료비 ····· 129
국민총소득 ····· 158
급성기의료 병상수 ····· 32
급성질환진료 병상이용율 ····· 35
급성질환진료 병상회전율 ····· 36
급여산정 ····· 122
기능별 의료비 ····· 54
기대여명 ····· 15, 126
기업연금제도 ····· 125
기초연금제도 ····· 124
노년부양비 ····· 140
노령연금대체율 ····· 10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42
노인 ····· 138
노인소득 ····· 103
단체참여 ····· 145
담배 소비 ····· 63
대체율 ····· 117
명목계정 ····· 121
모성사망비 ····· 22
목표제도 ····· 124
민간사회지출 ····· 106
백내장수술 ····· 49
보건관련지출 ····· 61

보건의료재원 ····· 59
보건의료전문직의 보수 ····· 28
보호자휴식서비스 ····· 139
비공식보호 ····· 136
사망 ····· 159
사망력 ····· 159
사망률 ····· 18, 159
사망원인별 사망률 ····· 159
사망의 외인 ····· 20
사회적 고립 ····· 143
상대빈곤 ····· 99
상대연금수준 ····· 116
생산가능인구 ····· 160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 113
소득불평등 ····· 101
소득비례연금제도 ····· 125
소비자신뢰형 ····· 133
수급요건 ····· 122
숙당 ····· 133
순대체율 ····· 118
시설보호 ····· 137
식품 소비 ····· 67
실업 ····· 87
실업급여 ····· 92
실업자 ····· 160
신직가구 ····· 89
심혈관질환 사망 ····· 18
심혈관질환 처치 ····· 46
10대 출산 ····· 146
아동빈곤 ····· 102
알코올 소비 ····· 65
암 사망 ····· 19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 147
약제비 ····· 57
어린이 예방접종 ····· 41
연금소득상한 ····· 114
연금수급연령 ····· 114
연금약정 ····· 110
연금자산 ····· 112
연령별 사망률 ····· 161
연령별 이혼율 ····· 161
연령별 출산율 ····· 162
연령별 혼인율 ····· 162
연령부양비 ····· 81
연앙인구 ····· 163
영아사망 ····· 21, 128
외국인과 외국출생인 ····· 83
외래수술 ····· 50
요양보호 ····· 133
요양시설/ 요양시설서비스 ····· 139
우선경험영구치수 ····· 25
의료기술 ····· 37
의사진찰 ····· 39
이혼 ····· 163
이환 ····· 164
이환율 ····· 164
일반의 수 ····· 31
일상생활활동 ····· 132
1인당 국민소득 ····· 79
1인당 의료비 ····· 51
입원진료 병상수 ····· 34
자본이전 ····· 164
자살 ····· 149
잠재수명손실년수 ····· 23
장기요양보호 ····· 131
장기요양보호시설 ····· 138
장애노인 또는 폐부양 ····· 134
재가보호 ····· 134
지체중출생아 ····· 24
점수제도 ····· 121

제왕절개 ····· 48
조사망률 ····· 165
조출생률 ····· 165
주관적 웰빙 ····· 142
주산기사망 ····· 21
지급연금연동 ····· 115
청년실업 ····· 97
총경상지출 ····· 56
총보건의료비 ····· 56
총사회지출 ····· 107
총인구와 인구구조 ····· 71
최저생계급여 ····· 94
최저생계비 ····· 165
최저연금제도 ····· 124
출산력 ····· 166
출산율 ····· 73, 82
출생 ····· 166
취업 ····· 166
취업모 ····· 90
취업사 ····· 167
퇴원 ····· 43
퇴직연령 ····· 96
평균수명 ····· 15
평균임신연령 ····· 168
평균재원일수 ····· 44
혼인 ····· 168
확장급여제도 ····· 120
확정기여제도 ····· 125
활동간호사 ····· 27
활동의사 ····· 26

영문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 132
Acute care hospital beds ····· 32
Acute care occupancy rate ····· 35
Acute care turnover rate ····· 36
Age of retirement ····· 96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 162
Age-dependency ratios ····· 81
Age-specific divorce rate ····· 161
Age-specific marriage rate ····· 162
Age-specific mortality rate ····· 161
Alcohol consumption ····· 65
Allowances ····· 133
Average length of stay in hospitals (ALOS) ····· 44
Basic pension schemes ····· 124
Benefit calculation ····· 122
Benefits of last resort ····· 94
Caesarean sections ····· 48
Cancer, mortality ····· 19
Capital transfer ····· 164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 18
Cardio-vascular procedures ····· 46
Care ····· 133
Cataract surgeries ····· 49
Cause-specific death rate ····· 159
Ceilings on pensionable earnings ··· 114
Child poverty ····· 102
Childhood immunisation ····· 41
Consultations with doctors ····· 39
Consumer direction ····· 133
Crude birth rates ····· 165
Crude death rates ····· 165
Day case surgery ····· 50
Death rate ····· 159
Death ····· 159
Defined-benefit scheme ····· 120

Defined-contribution schemes ··· 125
Disabled, or dependent older persons ··· 134
Divorce ··· 163
Drug use and related deaths ··· 147
Earnings-related schemes ··· 125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 155
Economic growth rate ··· 154
Economic variables ··· 12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54
Educational attainment ··· 95
Employed person ··· 167
Employed ··· 166
Employment ··· 86
Expenditure on health related function ··· 61
External causes of death ··· 20
Fertility rates ··· 73, 82
Fertility ··· 166
Food consumption ··· 67
Foreigners and foreign-born population ··· 83
Formal long-term care services ·· 134
General practitioners ··· 31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income inequality ··· 74
Gross domestic product (GDP) ··· 156
Gross national income (GNI) ··· 158
Group membership ··· 145
Health expectancy ··· 16
Health expenditure by function ·· 54
Health expenditure in relation to gross ··· 53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 51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 ··· 127
Home care ··· 134
Hospital discharges ··· 43
Household number ··· 153
Household ··· 153
Income inequality ··· 101
Income of older people ··· 103
Indexation of pensions in payment ··· 115
Infant mortality ··· 21, 128
Influenza immunisation among elderly people ··· 42
Informal care ··· 136
Inpatient care beds ··· 34
Institutional care ··· 137
Jobless households ··· 89
Life expectancy at birth ··· 15
Life expectancy ··· 126
Live birth ··· 166
Long-term care institutiuons ··· 138
Long-term care ··· 131
Low birth weight infants ··· 24
Marriage and divorce ··· 84
Marriage ··· 168
Maternal mortality ratio ··· 22
Mean age at childbearing ··· 168
Medical technologies ··· 37
Mid-year population ··· 163
Minimum living cost ··· 165
Minimum pension schemes ··· 124
Morbidity rate ··· 164
Morbidity ··· 164
Mortality rate ··· 18
Mortality ··· 159
National disposable income ··· 158

National income (NI) ····· 157
National income per capita ····· 79
Net replacement rate ····· 118
Notional accounts ····· 121
Number of decayed, missing or filled permanent teeth (DMFT) ···· 25
Nursing home/Nursing home care ·· 139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 125
Old-age dependency ratio ····· 140
Old-age pension replacement rate ··· 109
Older persons ····· 138
Out of work benefits ····· 92
Overweight and obesity ····· 69
Pension eligibility age ····· 114
Pension promise ····· 110
Pension wealth ····· 112
Perinatal mortality ····· 21
Pharmaceutical expenditure ····· 57
Points system ····· 121
Potential life years lost ····· 23
Practising certified/registered nurses ··· 31
Practising nurses ····· 27
Practising physicians ····· 26
Private home ····· 139
Private social spending ····· 106
Productive population ····· 160
Public social spending ····· 105
Public-sharing rate ····· 30
Purchasing power index ····· 156
Qualifying conditions ····· 122
Relative pension level ····· 116
Relative poverty ····· 99
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 28
Replacement rate ····· 117
Respite care ····· 139
Social isolation ····· 143
Sources of financing for health care ····· 59
Structure of the potential resources transfer to pensioners ····· 120
Subjective well-being ····· 142
Suicides ····· 149
Targeted schemes ····· 124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113
Teenage birth ····· 146
Tobacco consumption ····· 63
Total current expenditure ····· 56
Total domestic expenditure ····· 157
Total expenditure on health care ····· 56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 129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 71
Total social spending ····· 107
Unemployed person ····· 160
Unemployment ····· 87
Weighted average pension levels and pension wealth ····· 119
Weighted averages and the earnings distribution ····· 119
Working mothers ····· 90
Youth inactivity ····· 97

OECD 보건·사회 지표 용어 해설집

발행처 :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발행인 : 이영호

발행일 : 2006. 12. 31

인쇄처 : (주)국신도안디

JOINT OECD - 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http://www.OECDKoreaRCHSP.org